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7월 25일)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선명상의 진면목을 사회 리더와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마지막 이론 강좌가 8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강의 직후 가진 기념촬영.

진우 스님 선명상 법문, 대중과 通했다

8월 20일 선명상 아카데미 제7강으로 이론 강좌 회향

일곱 강의 평균 250여 명 참석
연인원 1700여 명 모으며 '인기'
강좌 등록인원 절반 가량 '개근'
강의 말미 '키워드 명상법' 화제
참가자 "선명상 생활 실천 계기"

신중일 · 김가령 기자

선명상의 진면목을 사회 리더와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마지막 이론 강좌가 8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내 팔자 바꾸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7번째 강의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들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정원주 대우건설회장(중앙신도회장 당선인),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는 공군사관학교 불자회 생도 10여 명이 동참해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법문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선명상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에 나선 진우 스님은 자기 마음 문제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자기 자신의 감정 덩어리가 자신의 업식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내가 일으키는 고락(苦樂)의 감정은 내 업의 발현이고 결과다. 계속 화를 내며 대상을 탓하는 것은 내 업만 쌓이는 행위"라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업식의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앞날은 선명상에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결론적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해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감정의 진폭을 줄여가는 선명상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맞는 명상법을 찾아 지금 당장 선명상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1시간 30분의 강의가 마무리된 후 참석 대중을 대표해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이 감사의 꽃다발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선명상 아카데미는 7강까지 평균 250여 명, 연인원 1700여 명이 참석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강좌 등록인원 324명 중 절반 가량인 160명이 7번의 강의를 모두 참석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진우 스님의 강의는 단순히 선에 대한 교리적 설명에 국한되지 않았다. 마음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서양철학과 양자물리학을 넘나들며 이뤄진 마음 구조 및 작용에 대한 설명은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진우 스님이 강의 말미마다 제시했던 '키워드 명상법'은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 진우 스님은 △'5초 우선 멈춤' 선명상(1강) △'하루 5분 무시로' 선명상(2강) △'쉘 패스(Shall pass, 지나가리라)' 선명상(3강) △'그림자' 선명상(4강) △'방하착(내려놓음)' 선명상(5강) △'삼수(三受)야 가라' 선명상(6강)을 제시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법문 핵심은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계속 업을 쌓아 어두워지는 길이니 선명상 정진을 통해 밝은 지혜로 함께 나아가자'는 당부"라고 정리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이 7번에 걸쳐 선명상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선명상 대중화라는 원력이 이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원력으로 한국사회가 밝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중들이 전한 강의료를 전부 어려운 이웃과 자비행을 행하는 불교단체에 기부한 것도 의미가 크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강의료로 모연된 3000만원을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원각,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다함께 나누는 세상과 자립준비청년 5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7번에 걸친 선명상아카데미 강좌를 들은 참가 대중들은 진우 스님의 선명상 강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은 "선명상 강의를 통해 진우 스님께서 구상하시는 불교 포교의 일면을 확인했다. 또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법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지금 발생한 고락의 문제가 자기자신의 업식으로 발현됐고, 스스로 업식을 녹이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에 깊이 깨우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7번의 강좌에 모두 참석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부처님 말씀을 스스로가 조용한 시간을 통해 되새겨 보는 것이 선명상임을 알았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나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매일매일 5분 명상을 실천하라는 6가지 명상법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강좌에 개근한 이은임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봉국사 신도회장)은 "5분 우선 멈춤 선명상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다.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게 우선이라는 부분이 크게 와 닿아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명상아카데미의 대미는 8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장식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법문과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혜민 스님(고담선원 주지), 혜주 스님(진관사 명상센터장)의 수행지도가 진행됐다. 〈차주상보〉

진우 스님 법문 지상중계 5면

'역대급' 국회 정각회 개원한다

9월 2일 서울 조계사서 제22대 개원 법회

이헌승 정각회장 취임식도

제22대 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가 9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법회에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의 헌등, 이헌승 정각회장의 헌화와 취임사 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조계사 맑은소리 합창단의 축가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어, 정각회의 발언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불교계를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법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조계종 직영사찰 주지스님, 조계종 부실국장스님 등이 참석한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여성불자회, 대통령실 불자회, 공무원불자연합회, 조계사 총신도회 등 신도회 측을 비롯해 정각회장과 정각회 국회의원,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22대 국회 정각회는 56명이 가입하며 역대 최다 회원을 기록했고, 스타급 의원도 다수 포함돼 출범 전부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 26명, 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등 56명이 가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곽상원 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6선인 주호영, 추미애 의원 등 스타급 의원도 다수 가입, 정각회 영향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헌승 신임 정각회장은 4선 중진 의원으로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보좌관 시절, 불자모임 '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인 2026년 5월 29일까지다. 임은호 기자

해인사 원로·중진스님, 결의문 발표

선용 스님 등 9명 명의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원로중진 특대위)는 8월 16일 선용·혜문·원학·원택·여연·원타·대오·종본·경성·도현 스님 명의로 된 결의문에서 현 주지 혜일 스님의 참회와 징계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원로중진 특대위는 결의문에서 "방장스님의 남은 임기를 회향할 수 있도록 솔선 모범을 보여야할 주지가 국장들을 선동하고 2차에 걸쳐 산문 입구에 현수막을 게재해 총림의 위상을 실추하고 방장스님을 음해하는 문구를 옮겨 출입하는 관람객과 산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총림 행정 책임자인 주지는 스스로 책무를 유기했다"면서 "현 주지는 임회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교구종회를 소집, 방장스님을 불신임 결의했으며 이는 종헌종법을 무시한 교구종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는 종헌종법을 유린, 초법적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장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주지가 스스로 산중 대덕 원로스님들과 총림대중을 기망했다"면서 주지스님의 참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김 가 령
김 민 재
2024년 8월 25일 부 이 상 2명

결 의 문

1. 해인사는 조계종단 최초의 총림이자 성철 방장 큰스님이후 수행 도량으로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다.
2. 전임 주지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신임 주지(혜일) 임명과정에서 故자승스님의 절대적 후원으로 부득이 산중 대중의 동의 절차 없이 방장스님의 추천으로 현 주지(혜일)가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3. 방장스님의 반년 정도의 남은 임기를 회향할 수 있도록 솔선 모범을 보여야 할 주지(혜일)가 국장들을 선동하고 2차에 걸쳐 산문 입구에 현수막을 게재하여 총림의 위상을 실추하고 방장스님을 음해하는 문구를 옮겨 출입하는 관람객과 산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총림 행정의 책임자인 주지(혜일)는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4. 뿐만아니라 현주지(혜일)는 임회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교구종회를 소집하여 방장스님을 불신임 결의하였으며, 이는 종헌 종법을 무시하여 교구종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는 종헌종법을 유린하여 초법적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
5. 600여명의 총림 재적승들의 만장일치 추천과 중앙종회에서 추대된 방장스님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방장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주지(혜일)는 스스로 산중 대덕 원로스님들과 총림대중을 기망하고 오만불손한 패악질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
6.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현 주지(혜일)는 총림대중과 방장스님께 참회하고 즉각 주지직을 사퇴하라.
– 현 주지(혜일)의 불법적, 패륜적 행위에 대해 종헌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요청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정지를 요청한다.
–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총림대중의 관습법에 따라 사퇴토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8월 16일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
선용 혜문 원학 원택 여연 원타 대오 종본 경성 도현

“백중 의미 ‘부모은중경’ 사경으로 되새겼죠”

달마사 청년회 ‘달마지기’ 회원
백중 맞아 49일간 사경 정진해
8월 18일 사경 정진 회향법회
네이버 인증제 도입, 사경 독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달마사 청년회(달마지기)가 우란분절(백중) 기간 동안 부모은중경 사경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도법사 혜력 스님과 함께한 청년회원들 모습.

달마사 2030세대 불자 청년들이 우란분절(백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부모은중경〉 사경 정진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서울 달마사 청년회(지도법사 혜력 스님, 이하 달마지기)는 경내 참선방에서 7월 1일부터 〈부모은중경〉을 사경하고, 백중인 8월 18일에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경 정진에는 지도법사 혜력 스님을 포함한 2명의 스님과 13명의 청년불자 등 총 15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우란분절은 음력 7월 15일에 행해지는 의례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재(齋)를 베풀며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다. 이 연원은 〈우란분경〉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아귀지옥에서 고생하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대로 승가대중에게 공양을 올렸고,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무량한 복락을 받게 됐다. 이번 백중 사경 정진도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며 효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경 수행을 기획한 정재현 달마지기 청년회 회장(23)은 “청년들은 학교, 직장생활 등으로 매주 사찰을 방문해 백중 기도하기 어렵다. 이에 〈부모은중경〉 사경을 기획해 장소·시간과 상관없이 부모님·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MZ세대의 ‘챌린지’ 열풍을 벤치마킹, 네이버 밴드 인증제와 우수 사경자 시상을 도입, 사경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경 회향 법회는 오후 3시 경내 참선방에서 개최됐다. 지도법사 혜력 스님이 집전을 맡아 △삼귀의 △반야심경 △108배 참회 △우수사경자 시상 △소지식(燒紙式, 사경집을 태우며 공덕을 회향하는 의식) △회향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사경자로는 △이진영(49일) △정재현·임영서·장순헌(47일)이 선정돼,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았다.

지도법사 혜력 스님은 회향법문을 통해 “오늘은 49일간의 사경으로 생긴 공덕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날”이라며 “사경집을 태우는 소지식을 행하면서 사경 공덕이 인연 영가에게도 닿을 것이다. 사경하면서 느꼈던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경 수행을 참여한 이진영(32) 씨는 “불자지만 수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사경에 참여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그는 “〈부모은중경〉에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사경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노고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경 회향 법회에 앞서 경내 대웅전에서는 백중 회향 법회가 진행됐다. 달마사 주지 일행 스님은 법상에 올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족, 선망조상영가 등 주변 인연을 위해 3달간 정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와 남 구분 없이, 모든 인연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보라”고 당부했다.

2024 불교도대법회 기금 전달 잇따라

봉국사 · 장안사 각 1000만원



‘2024 불교도대법회’의 원만개최를 발원하는 사찰들의 기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봉국사(주지 현근 스님)〈사진〉와 장안사(주지 성화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여법한 불교도대법회 개최를 발원하며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봉국사 주지 현근 스님은 “불교도대법회를 위해 신도회와 마음을 모으게 됐다”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불교도대법회에 불교계 내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사찰들의 기금 전달에 감사하며 “불교도대법회 성공개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이승만기념관 송현광장 추진 죄송”

오세훈 시장, 8월 22일 태고종 승려연수교육 참석해 사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승만기념관을 송현녹지광장에 건립 추진하려 한 데 대해 태고종 지도부와 대중스님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8월 2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전국 승려·전법사(교임) 연수교육 입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경과를 간략히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송현녹지광장 건립 추진은 제 뜻과는 달리 진행됐다”며 “그렇다 해도 추진 기간 중 스님들께 폐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태고종의 반대 입장을 알고 장소를 송현녹지광장이 아닌 용산으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오 시장은 “송현녹지광장은 비워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게 평소 저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태고종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명의로 8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종교편향뿐만 아니라 3·15부정선거에 따른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린 장본인으로서 국민들과 4·19의거에 의해 물러난 인물”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종단과 불교인도 각각 국민의 한 사람로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금산사 종회의원 덕림 스님 선출

단독후보 무투표 확정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 종회의원에 덕림스님이 선출됐다.

덕림 스님은 함께 입후보했던 산성 스님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독후보로 남게 돼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덕림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금산사 포교·사회·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사무총장과 금산사 부주지 및 익산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구의 삼업청정으로 고락서 벗어나라”

진우 스님, 8월 18일 봉은사서 법문
백중 의미 설명…“분별심 없애라”


진우 스님은 8월 18일 봉은사에서 봉행된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대중들에게 분별심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을 청정하게 할 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8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법왕루에서 봉행된 ‘백중 회향 및 하안거 해제법회’ 초청 법사로 법상에 올라 우란분절(백중)의 의미와 불자의 덕목에 대해 법문했다.

더운 날씨에도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해 진우 스님의 백중 회향 법문을 들었다.

먼저 진우 스님은 대중에게 백중의 의미를 설했다. 이어 “백중날 대중은 스님에게 보시하고 보시받은 스님들은 영가에게 염불로 법문을 들려준다”며 “이로써 영가들이 스스로 깨닫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백중 회향의 의미를 짚었다.

진우 스님은 법회 참석 대중들에게 분별심을 내려놓고 고락(苦樂)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은 스스로 감정의 호오(好惡)과 분별심을 없애 고락에서 벗어나고 모든 인연에게 좋은 복락을 짓길 발원해야한다”면서 “불자들 모두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는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영향을 받는 인드라망처럼 모두 연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면서 “내 자신이 먼저 분별심이라는 고락에서 벗어나야 영가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삼악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령 기자

해인사 문도협, 문도 대표 제1차 간담회

8월 19일 “수행 가풍 회복 노력”

해인사 문도협의회는 8월 1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1층에서 ‘해인총림 문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동참한 90여 스님들은 해인사 관련 추문으로 인한 승풍실추 책임을 묻고 해인사 승가의 위상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진각 스님은 경과 보고를 설명하며 “해인사 문도협의회는 수행 가풍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전했다.

이어진 승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성법 스님은 “해인사가 현재 잡음과 추문에 휩싸였는데 종지를 모아 해인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성 스님은 “옛 위상을 되찾고 큰 스님들이 계셨던 해인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으며, 종묵 스님은 “종지를 모아 하루빨리 해인사가 안정되고 수행 가풍을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재오픈!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채로운 전시와 쾌적한 체험 공간으로
다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더욱 특별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재오픈 기념 이벤트 (9월 한달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무료 음료 나눔을!
수강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 2층
(안국역 1번 출구)

02-733-4650

info@templestay.com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하차

“레바논서 국군장병 마음 돌보겠다”

균재 스님, 비구니 최초 파병
10년 군종법사 전환점 되새김
파병장병 신앙 활동 · 상담 전담
“부대원들 마음 평안 위해 노력”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비구니 최초 국제평화지원단 파병 군승 균재 스님이 파병지에 가져갈 기념수건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파병 장병의 마음을 돌보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온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육군 역사상 두 번째 여군 군종법사인 균재 스님(육군대위)이 8월 20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바논 파병 각오를 밝혔다.

비구니 군승으로는 최초로 해외 파병에 나서는 균재 스님은 국제평화지원단의 레바논 동명부대 30진으로 파병을 간다. 균재 스님은 총 280명의 파병 인원 중 유일한 군종장교로 오는 9월 2일부터 8개월간 군종법사로 활약한다.

균재 스님은 2015년 군종법사로 임관하고 10년째에 이르러 파병에 지원했다. 스님은 “외지나 타국에 다녀오는 것은 부담이라고 생각해 파병에 용기가 없었는데, 파병을 다녀온 정은해 군종목사가 부대원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적극 추천해서 마음이 달라졌다”며 “군종법사 10년 차로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승려로서 수행도 돌아보고자 파병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이 속한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대민 의료지원, 현지 주민 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스님은 현지에서 국군 장병들과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며 부대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신앙 활동, 심리 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개월간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심리상담 교육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스트레스 완화 기법 교육을 받았다. 스님은 “다년간의 군종법사 경험을 통해 출신지, 병과, 종교가 다양한 부대원들 사이에 스며들 것”이라며 “스님으로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대원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이 레바논에 가져가는 짐만 1.6톤이다. 모두 파병 현지에서 280명의 부대원와 나눌 물품과 식품들이다. 법회를 위한 설법대, 방석 등을 비롯한 장병들이 먹을 국수, 라면, 고추장, 약재, 과자 등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군종특별교구 교구장스님과 육해공군의 지원 등으로 마련됐다. 또한 스님은 위문품으로 수건과 단체 티셔츠 300여 장을 제작해 함께 선물한다.

균재 스님은 “많은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파병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해 좋은 소식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균재 스님은 2001년 서울 봉정암에서 지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법회 지도법사를 맡다가 2014년 명법 스님과 인연으로 군종법사에 지원하게 됐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8월 19일 국제평화지원단 내 호국 흑룡사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30진 파병 환송기념 교구장 법원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기념수건과 간식으로 구성된 위문품 250세트가 부대원들에게 전달됐다.

‘사찰림연구소’ 설립…사찰림 관리 본격화

10월 22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조계종 종령기구 전문기관 도약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증진을 위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출범한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는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전국 교구본사 사회국장단 회의’를 열고 사찰수행 환경·종교차별·국제교류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이와같이 밝혔다.〈사진〉

사회부는 이 자리에서 불교계 유일한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이 10월 22일 개최됨을 알렸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2009년 ‘한국사찰림연구소’로 설립돼 산림청의 인가를 받아 사찰림의 관리·보존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종무회의를 거쳐 올해 2월 조계종 산하 종령기구가 됐다.

사찰림은 사찰 일원에 속한 사유림이지만 현행 법령에 의해 공공자산으로 구분돼 사찰의 자율적인 활용이 불가능하다. 자연공원에 속한 사찰림의 나무를 베고자 할 경우 국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타 사유림과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정책 연구와 대응책 개발 등을 통해 사찰림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앞장선다.

사회부는 “종령기구가 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본격적으로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치 증진이 가능한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출범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전국 교구본사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는 △전통사찰 산림 실태조사 △사찰림해설사 양성 △사찰림 생태문화 교육 △사찰림 포럼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환경정책수립 및 정책 안내 △환경위원회·국제교류위원회 활동 보고 △종교차별 대응 사례 공유 △외국인스님 초청 및 체류 출입국 안내 △교구별 주요 현안 공유 등의 안건들이 다뤄졌다. 김가령 기자

“무종교인 포교, 경험 중심 메시지가 효과적”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의 모색’
결과 발표…“사회 메시지 유용”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에서는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한 메시지와 일반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사진〉은 8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포교원과 동국대가 개최한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 특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 김 연구원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람들이 불교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개인적 불교 메시지’ ‘사회적 불교 메시지’ ‘전문가 정보원’ ‘일반인 정보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 130명씩, 총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지는 불교 본질에 관한 태도, 불교 행위에 대한 태도, 중립 메시지 처리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 메시지 내용의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는 불교 본질에 관한 태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난다. 사회적 메시지 집단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반면, 개인적 메시지 집단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기존 기복 불교로만 인식됐던 상황에서, 사회적 메시지가 개인적 메시지보다 더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종교인 집단에서는 개인적 메시지가 부정적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 유형(일반인·전문가)에서 살펴보면 불교신자와 타종교신자에게는 전문가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불교신자 집단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사회적 계층이 높을수록 전문가일 때 불교 본질에 대한 태도의 긍적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권위와 신뢰성이 불교신자들에게 신앙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무종교인에게는 일반인의 경험담이나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교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종교인들이 일반인의 메시지에 더 큰 동일시를 느끼며, 불교의 사회적 유용성이 강조된 메시지가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는 불교의 사회적 메시지와 일반인의 경험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본 연구는 불교 포교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적 배경, 메시지 유형, 정보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 포교 전략을 다변화하고 현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호소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기본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의 설립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학제적 연구 강화 △연구와 교육, 데이터 생성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내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모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 직위 : 사장
- 임 기 : 3년
- 자격 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불교언론사로서 정론직필하며,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 감각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서명 날인)
  -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 경영계획서 1부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6매 내외)
  - 이력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기간 등
  - 제출 기간 : 8월 21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 등기우편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길 23-26 현대불교 부산지사)
    – 이메일 (wiseway3@hanmail.net)
  -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 심사 (필요 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기 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중창조사 청담대종사 존상 훼손 및 신조성에 대한 입장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하오며,
청담 대종사님의 직계제자와 재가제자들은 청담대종사의 존상 훼손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발로 참회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도래한 지 1700여 년, 불교는 겨레의 운명과 함께하며 고난 가운데 의지처가 되어주었고 삶 속에 스며들어 민족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 탄압이 거세지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하에서 불교는 그 정체성과 문화가 말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선사(先師)들은 독립운동의 대열에 함께 하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정진하였고, 해방이 되어서는 왜색 불교를 척결하고자 생사를 초월한 정화불사를 단행한바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청담 대종사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담 대종사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에 주춧돌을 놓으신 분입니다. 정화불사와 더불어 불경의 한글화를 기반으로 포교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불교신문을 창간하고 도제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군승제도 도입, 신도회 조직,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등을 이뤄냄으로써 불교중흥의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청담 대종사님은 도선사 문중을 넘어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셨으며 능히 중창조사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한국불교 현대화의 중심이셨습니다. 이러한 대종사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1974년 청담문도회는 스님의 법향이 서린 도선사 도량에 사리탑과 존상을 봉안하였습니다. 이는 청담스님의 광대무변한 업적을 후대에 면면케 하고 큰 지남이 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 현 주지 태원 스님이 청담 대종사의 존상 재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문중과 상의 없이 존상을 철거하여 지방으로 옮기면서 훼손이 됐으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 태원 스님은 존상이 낡고 훼손되어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직계제자 스님들에게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중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리탑 주변 성역화에 대한 설명에 그쳤을 뿐 공론의 장에서 존상의 철거와 새로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거론이 한 바 없습니다. 만일 존상을 새로 조성하는 안이 거론되었다면 직계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이후 주지는 손자 상좌들과 회의를 한 후 존상을 경북 고령의 석재공장으로 이운하였습니다. 이에 직계제자들이 “왜 상의도 없이 존상을 내려보내느냐?”고 항의하자 태원 스님측은 지난 8월 12일에 직계제자 몇 스님들을 고령의 석재상으로 불러 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태원 스님측은 존상을 새로 조성하려는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일말의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직계제자들은
첫 째, 새로운 존상 조성에 대한 공론의 장에서 설명과 논의가 없었다.
둘 째, 문도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셋 째, 주지는 일방적으로 존상을 경북 고령의 석재상으로 이운하였다.
넷 째, 청담 대종사의 존상 이전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다섯째, 주지는 직계제자들을 고령으로 오라고 하여 마치 손상좌들과 대립하는 모양을 조장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로 직계제자들은 현장에서 도선사 주지에게 대종사의 존상을 원래 위치로 다시 모실 것을 요구하는 등 질책을 하였습니다.

도선사 주지는 청담 대종사님 사리탑 성역화 불사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나 진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 째, 기존 청담대종사님의 존상을 원래 위치로 이운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문중에 보고 및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
둘 째, 현 청담대종사님의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는 존상의 이전과 훼손에 따른 파행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우니 존상 문제가 종결 시까지 잠정 중단해야 한다.
셋 째, 주지는 존상의 임의 이전과 훼손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발로 참회할 것이며, 책임을 지는 행보를 해야 한다.

50년이 지난 청담 대종사의 존상은 조성 당시의 불심과 성원이 배어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문화재적 가치마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담 대종사의 존상을 참배한 불자들도 참담한 심정이라 합니다. 청담 대종사의 존상을 부득이 새롭게 조성하고자 한다면 진단을 한 후 가칭 「청담대종사 존상 신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 경기 등 공정하고 여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청담 문도는 물론 종단의 의견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 청담 대종사 존상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도선사가 본래의 서원을 다하고 대종사의 유지가 널리 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되도록 청담 문중의 후손 제자들은 진심을 다해 정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도선사 문제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청담 대종사는 한국의 근현대 불교사를 향도하신 큰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 직계제자와 재가제자들은 거듭해서 제방의 스님과 재가불자님들께 특히 청담 대종사를 추모하는 여러분께 사죄와 더불어 참회합니다. 청담 대종사의 존상이 여법하게 장엄되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불·법·승

청담대종사 직계제자·재가제자 일동 합장

번아웃 직장인, 비구니스님과 동행하다

비구니스님 주인공 영화 '문경'
8월 22일 조계종 청사서 시사회
비구니 역할 배우, 삭발로 화제
윤필암 머물며 '중물' 들이기도
조계종, 영화제작 초기부터 도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8월 22일 조계종 청사에서 열린 영화 〈문경〉 시사회에서 감독과 배우가 인사를 하고 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업무와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과부하로 번아웃 증세를 겪는 '문경'(배우 류아벨).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전시회를 성공시켜도 정규직 전환이 어렵기만 한 '초월'(배우 채서안). 문경은 후배 초월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초월의 고향이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문경으로 휴가를 떠난다.

그곳에서 첫 만행을 시작한 비구니 명지 스님(배우 조재경)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유랑 할매'(배우 최수민)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사연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제 각자의 길을 나서야 하는 시간, 길순의 보호자를 정하기 위해 세 여자가 마당에 섰다. 결정권을 갖게 된 길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영화 '문경'은 쉼 없이 달려오다 번아웃된 직장인 문경이 휴식을 위해 떠난 경북 문경에서 명지 스님과 강아지 길순을 만나 2박 3일 동안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로드무비 형식의 전개로 진행되는 영화는 경북 문경의 명소들과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영화 '문경' 시사회가 8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제작 준비 당시부터 조계종 교육원이 아낌없는 도움을 준 것이 인연이 됐다. 특히 비구니 명지 스님 역을 맞은 조재경 배우는 교육원이 안내한 비구니스님들에게 스님들의 생활과 습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회에서 신동민 감독은 "조계종 교육원의 도움으로 시나리오 초창기 스님 8명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영화가 제작됐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영화의 배경이 된 문경은 독립예술영화계에서 입지를 다진 신동일 감독의 고향이기도 하다. 신동일 감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저마다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틈'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문경'에서 각기 다른 세대의 여성 캐릭터들이 전하는 유쾌한 연대를 통해 상처입은 이들을 보듬는 치유의 여정을 그려나갔다"면서 "만행 중인 명지 스님과의 에피소드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인연과보를 담았다. 자극을 더 자극으로 밀어내는데 급급한 도파민 중독 시대에 관객들이 여행과 관계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지 스님 역의 조재경 배우는 이번 작품을 위해 삭발을 감행했고 역할 몰입을 위해 윤필암에 장기간 머물며 '중물'을 들이기도 했다. 조재경 배우는 "스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영화촬영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스님들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사회에 앞서 감독과 배우들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예방하고 제작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화 스님은 배우들을 응원하며 "바른 믿음과 이상적인 가치관을 갖은 영화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배석한 문화부장 혜공 스님도 "영화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감독과 배우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오길 기원한다"면서 "소재가 된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축원했다.

민추본, 8기 불교지도자과정 성료

8월 21일 수료식…42명 수료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이끌 불자 양성을 위한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8기가 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민추본)는 8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8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수료생들은 올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존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공동대응 및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 받았다.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평화순례'를 떠난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독립열사들의 투쟁 흔적과 남북관계 평화발전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북중접경지역 순례를 통해 민족의 족적을 되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미얀마·미국·중국 불교 면면 살피다

조계종 사회부, 해외불교세미나



미얀마·미국·중국 해외불교 3개국의 수행 현황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가 8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해외불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얀마·미국·중국 3개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행 현황, 정체성, 대중화 요인 등을 고찰했다.

세미나에 앞서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해외 불교계의 수행 동향을 살펴보고 종단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해외불교세미나가 종단과 해외불교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월정사, 온 생명 위로하는 무차법회 연다

9월 7일 경내 적광전 특설무대
반려동물, 수자령 합동 천도재


자현 스님이 8월 19일 나무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천도하는 법석이 마련된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9월 7일 오후 1시 경내 적광전 특설무대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영가천혼 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조상 영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수자령 모두 차별 없이 천도의 대상으로 확장해 눈길을 끈다. 월정사는 기존에 한 개였던 영단(靈壇)을 세 개로 나눠, △조상 △반려동물 △수자령 천도를 위한 단을 세울 계획이다.

법회에는 기존 종이 위패 대신 영가의 계첩(戒牒)을 위패로, 동참자와 영가의 이름을 적은 호마목(護摩木, 불에 공양물을 태우는 밀교의식인 '호마'에 사용되는 나무)을 축원문으로 사용한다. 기도 후에는 모두 소지(燒紙)해 영가에 공덕을 회향할 예정이다.

월정사 수행원장 자현 스님은 반려동물 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현 스님은 8월 19일 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명에 달한다. 인간보다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을 잃은 현대인들은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 이는 새롭게 떠오른 문제"라며 "불교는 인간과 동물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치유할 것을 주문한다. 불교가 반려동물 천도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금강경은 49재, 백중 등 영가천도와 관련이 깊은 경전이다. 영가천혼 무차대법회는 금강경 봉찬기도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법회에서 반려동물·수자령을 모두 천도해 모든 생명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경 봉찬기도는 매일 금강경을 수지독송·사경하는 신행 결사체다. 봉찬기도는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이 1931년 발의하여 중대 적멸보궁을 중심으로 계승됐으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본사 차원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전법단 회의…"역량 강화에 최선"

포교원, 포교 활성화 방안 모색



10개 분야 전법단이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8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포교원장이자 전법단 총재 선업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전법단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법단 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 홍대선원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와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일감 스님)의 전법 현황 및 주요 활동이 소개됐다. 10개 분야 전법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각 현장에서 원활한 포교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종단과 교구본사,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내영 기자

圓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당 원담 대종사 寂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당(法敏堂) 원담(原潭) 대종사가 8월 14일 한국불교원효종 부산 수덕사에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다비식은 8월 21일 오전10시 영축총림 통도사 다비장에서 엄숙희 봉행하였습니다.
다비식에 참석하여 주신 원로 대덕스님들과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민당 원담 대종사 2재 ~ 막재 일정은 매주 화요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본산 수덕사에서 봉행합니다.

막재 일정 : 불기 2568(2024)년 10월 1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수덕사 대웅전

한국불교원효종 장래위원회

종 회 의 장	진성	종회부의장	보각
총 무 국 장	혜성	총 무 부 장	묘음
재 무 국 장	혜조	재 무 부 장	법하
호 법 국 장	대성	호 법 부 장	길현

한국불교원효종 원담문도회

백연사(정원) 성불사(진성) 천왕사(대성) 장불사(혜소)
보현정사(묘음) 약사암(혜성) 연화사(혜광) 도솔정사(법하)
용궁사(혜수) 정토사(혜조) 대일암(보각) 석불사(길현)
밀양사(혜영)

한국불교원효종 수덕사

신 도 회 장 하형성 신도부회장 이훈희 총 무 정도덕화 신도대표 서도명화
법당봉사단장 이수선화 봉 사 회 원 장영이 공양간봉사단장 유도선
봉 사 회 원 김정선, 이수례, 유정숙, 김화현, 김경화, 김강자, 조영애

한국불교원효종 종도일동



“업장 녹이려면 선명상을…감정을 ‘일여’히 하라”

〈一如〉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7강

‘내 팔자 바꾸는 기가 막힌 방법’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7강이 8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내 팔자 바꾸는 기가 막힌 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는 진우 스님이 진행했던 이론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감정의 진폭을 줄여가는 선명상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맞는 명상법을 찾아 지금 당장 선명상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 김가령 기자



8월 20일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제7강에서 진우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감정의 진폭이 바로 업의 크기
업장을 녹이려면 수행 필요해
분별심 일어나기에 감정 동요
감정 진폭을 없이 고요해져야
자신에게 맞는 명상 선택 정진을

오늘은 강의의 일곱 번째 시간이자 실질적인 마지막 시간이다. 그동안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많이들 이해하셨길 바란다.

명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 할 수도, 몇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맞는 명상을 선택해 정진하는 것이 선명상이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선명상을 하는데도 공식이 있어 그 방법만 안다면 언제, 어디서든 선명상을 할 수 있다.

공식 가운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구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현상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한지, 진짜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눈과 보이는 대상만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없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니까. 문제는 내가 생각을 하고 기분을 일으키는 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현상에 기분이 오락가락 한다.

고전물리학에서는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규칙이 있고 모든 게 결정돼 있다고 한다. 어떤 물질, 대상이라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가 틀림없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이런 법칙이 현대로 오면서 깨져버렸다.

깨진 이유는 바로 양자역학, 현대물리학 때문이다.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중슬릿 실험을 한 바 있다. 종이에 구멍을 두 개 뚫어 전자 알갱이, 입자를 쏘는 실험이다. 전자가 얼마냐 작냐면, 큰 축구경기장 한가운데 콩알이 있고 이 주변을 먼지 같은 것이 채운다. 축구경기장은 원자, 콩알은 원자핵, 먼지는 전자다. 그만큼 전자가 작다. 이렇게 작은 전자 알갱이는 구멍 두 개를 모두 통과했다. 생각 같아서는 전자 알갱이는 구멍 하나만 통과할 것 같은데 두 개 전부 통과했다. 작은 전자 알갱이가 파동이 돼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고 간섭무늬라고 해서 주변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입자는 입자 자체가 아닌 파동으로 변화해 나타났다. 이것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린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보고 고집을 피운다. 내가 가진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접하고는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진실은 다른데 있는데도 본질을 보지 않고 엉뚱한 생각, 행동을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현상과 인연들이 만들어져 기분까지 나빠진다.

지금까지 마음의 구조, 감정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감정은 한 마디로 ‘이 감정과 저 감정’이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말과 같다.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은 그 사이에 시차만 각각 다르게 있을 뿐이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지만 그 사이에 시차가 있지 않은가? 그것과 똑같다.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한다. 소위 팔자소관(八字所關)을 말한다.

팔자소관, 사주팔자란 사람은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불교적으로는 장난이나 마찬가지다. 감정을 비롯한 많은 것들은 질량보존의 법칙을 따른다.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같은 양의 나쁜 것이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것은 전부 주관적이다. 어떤 삶인지는 당사자만 안다. 어떤 삶인지는 느끼는 당신만 안다. 괴로운 상황을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다니면 힘들어진다.

그런데 만약 감정에 끌려다니는 걸 알게 됐을 때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진다. 내가 왜 내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다. 내가 어떤 목표, 목적의식을 가졌는데 그게 생각한 수순대로 안 됐을 때도 굉장히 힘들다. 옆에서 뭐라 해도, 내가 내 감정이 지나갈 줄을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걸 알면 스스로 화가 나 주체를 못한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원인은 사실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것이다.

진우 스님, 궁금해요

Q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성질도 생멸하니 그대로 두길 권한다. 일단 5초 참고, 가장 좋은 것은 ‘이뭐꼬’라는 화두를 들고 관(觀)하는 것이다. 화두는 마음을 깨친 조사가 내는 소리다. 그 화두 하나로 몰입하는 것이 간화선. 그것에 오롯이 집중해 분별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A 인류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산다면 업만 남는 세상이 된다. 마음은 원자와 같아서 몸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 업 덩어리로 남는다. 죽어서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인류의 구제를 위해 선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중화를 위해 강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어린이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이어지게 선명상 공교육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Q 한국불교는 우리 공동체의 더 큰 행복과 이익을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나요?

A 한국불교는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마 사회적 불안정이 퍼지고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명상의 보편화와 일반인들이 납득 가능한 불교를 보급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없애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리라 희망한다.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통합도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전생에서 쌓은 감정을 업식(業識)이라고 한다. 전생의 업이 축적돼 현재 나타나는 건데 제어가 어렵다. 스스로 알면서도 제어를 잘 못한다. 전생의 업에 따라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반응하면 다음 과보로 이어진다. 결국 끊임없이 이어진다.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라고 한다. 여러 생에 걸쳐 업이 중첩된다.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것을 참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이 이뤄졌기 때문도 있다. 윤리적, 도덕적, 더 깊이 들어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 범주를 서로 정해뒀다.

이 사바세계의 현상은 다만 작용할 뿐이다. 묘하게 움직이고 작용하는데 이것을 깨달은 눈과 마음으로 보면 묘용(妙用)이 된다. 내 업은 내가 받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하고 감정도 똑같다. 좋은 게 하나면 싫은 것도 하나. 행복한 것이 하나면 불행한 것도 하나로 나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질량이 똑같다. 밀물이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1mm의 오차도 없이 썰물로 나가는 것과 같다. 속상한 일이 있다 한들, 24시간 동안 얼마나 되는가? 곧 다시 똑같은 행복으로 돌아온다.

내가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것을 숙업의 업장이라 하는데 수행을 통해 서서히 없애야 한다. 가장 쉬운 수행 방법이 ‘선명상’이다. 선명상으로 업장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일 모두 인연 현상에 의해 나타난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선명상이 없는 한 계속 감정의 진폭이 반복된다. 성인군자라 해도 감정의 진폭이 크면 성인군자가 아니다.

감정의 진폭, 파장의 크기가 업의 크기다. 대단히 기분이 좋으면 대단히 기분이 나빠진다. 기분 좋을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질 일도 많지 않다. 감정의 파동이 점점 작아져 진폭이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 일여(一如)한 상태다. 부처님께서는 분별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감정의 진폭을 줄이는 방법이다. 감정선이 일여하게 나타나야 아침, 낮, 저녁, 밤 모두 내가 좋아진다. 결국 문제는 대상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감정을 일으키거나 만드는 것이다. 보는 것, 들리는 것을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말처럼, 집착이 없어야 진정한 마음이 가능하다. 감정을 일으키면 업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정의 진폭이 커져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모든 감정은 내 몫이다. 현상은 그저 인연생기 해서 일어날 뿐이다. 이 우주는 인드라망으로 이어져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일일이 반응하면 내 업만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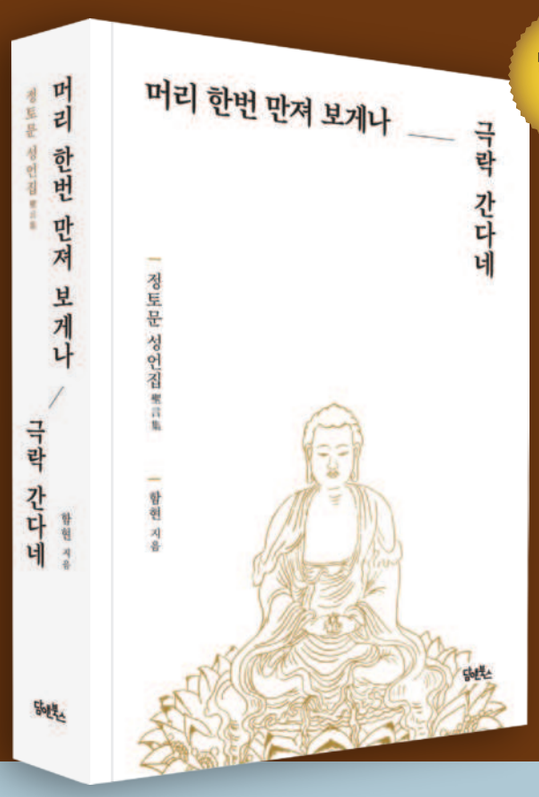
보통 많은 곳에서 교육할 때, “마음을 곱게 쓰라”고 한다. 마음의 삼독심(三毒心)을 빼라는 뜻이다. 좋은 마음을 냄으로써 업장을 줄여나간다. 이로써 육바라밀(六波羅密)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발생함을 이해하고 선명상을 통해 훈련해나가면서 실행 가능하다. 참선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어렵다면 걸으면서 해도 좋다.

내 마음이 만드는 감정을 나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 수행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5분 명상, 우선멈춤 명상 등 방법을 택해 행하면 된다. 결론은 자신의 마음 문제는 스스로 노력해 해결해야만 도돌이표 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감정의 진폭과 업장을 줄여나가는 선명상을 꼭 실천하시길 바란다.

전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의 ‘정토행자’ 공표
정토신앙으로 안내하는 ‘염불수행 지침서’

정토문 성언집(聖言集)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 극락 간다네



함현 지음 | 150x210 | 432쪽 | 18,000원

“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_본문 중에서

| 도솔 함현 兜率 涵玄 |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앤북스

‘팔만대장경 인경’ 혜견 스님 면면을 살피다

2024년 통도사 하계학술대회
용악 혜견 생애 및 법맥 살펴
재조대장경 인경 의의 고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8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용악 혜견의 생애와 1899년 재조대장경 인경 사업의 의의’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8월 17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용악 혜견의 생애와 1899년 재조대장경 인경 사업의 의의’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용악 혜견(龍岳 慧堅, 1830~1908)의 원력으로 1899년(광무 3)에 이루어진 고려재조대장경(이하 팔만대장경) 인경 봉안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통도사는 “용악 혜견 스님은 팔만대장경 인경 봉안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1899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4부는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에 봉안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 인경본은 세월이 지나면서 유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유일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힘든 고난의 역사 속에 용악 혜견 스님은 팔만대장경 인경 사업을 이루셨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업적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개회 법문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고려대장경 인경(印經)의 역사와 그 특징(박용진 국민대 교수) △용악 혜견(1830-1908)의 생애·법맥과 ‘용악당사고집’의 편찬 과정 검토(김방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용악 혜견(1830-1908) 선사의 시 세계(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로 이어졌으며, 종합토론에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위원, 박해당 성균관대 초빙교수, 박해진 작가가 참여했다.

김방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은 ‘용악 혜견(1830-1908)의 생애·법맥과 ‘용악당사고집’의 편찬 과정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용악 혜견 스님이 1896년 67세 나이에 팔만대장경 인경을 발원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석왕사도총섭으로 태조 이성계에 의해 석왕사에 대장경이 봉안됐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석왕사 대장전은 태조 3년(1394) 성호 주지가 창건한 이래 여러 차례 중창됐다. 인조 19년(1641년)에는 전소되어 그때 보관 중이던 대장경도 소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은 다시 중수 되었고 고종 15년(1878년)에 다섯 번째 중창되면서 대장전에서 해장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용악 혜견은 중창 4년 전 1874년에 주지로 지냈다. 그는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원력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용악 혜견 스님은 함경도 함산에서 태어나 1842년 석왕사 신암(信庵)에게 출가했다. 석왕사 주지와 총섭을 거쳤으며, 1896년 67세의 나이로 도총섭의 직위를 가지고 팔만대장경 인경 사업을 위해 통도사로 내려왔다. 이후 이 사업에 헌신하며 전국의 불교계에서 자금을 모으고 기도와 정진을 통해 팔만대장경 인경을 이뤄냈다.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회향

8월 21일 설법전 및 경내 일원
5월 25일부터 90일 동안 진행


금정총림 범어사는 8월 21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8월 21일 경내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백중을 맞아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전한다.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 기도와 함께 법문을 통해 백중의 참된 의미와 효 실천의 공덕을 더불어 안내하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5월 25일 백중 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90일간 기도를 이어왔으며 매주 토요일에 법석을 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범어사 율주 수불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등 14명의 선지식 초청법석이 진행됐다. 회향 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법문했다.

이 자리에는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정오 스님과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에도 수많은 대중이 참여해 자리를 지키며 기도에 정성을 더했다.

정여 대종사는 법어에서 “그동안 성불의 고귀한 씨앗을 심어주신 법사 스님들의 공덕과 원만 회향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신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모든 소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세상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 감로법문을 영가들이 듣고 깨달아 극락으로 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여러 불자님들도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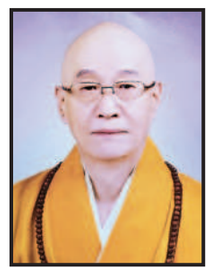
이어 “지장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이웃과 유정무정 모든 생명과 나누는 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고 바른 회향이다.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해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효가 만가지 선행의 근본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참석한 스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영가가 미련없이 극락왕생하도록 불자들의 마음도 가볍게 보내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장 기도에 동참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담 대종사 원적

8월 14일 세납 76세 법랍 49세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당(法敏堂) 원담(原潭) 대종사〈사진〉가 8월 14일 한국불교원효종 부산 수덕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납 76세, 법랍 49세.

장례 절차는 스님의 평소 유지와 뜻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다비식은 8월 21일 영축총림 통도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법민 스님은 1948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82년 불우청소년선도자비회 초대회장을 맡으며 나눔과 인재불사를 발원했다. 1985년 능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부산 수덕사 주지로 활동했다. 1988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학당, 지역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매년 지역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봉행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자애원’을 설립해 불교 복지사업에도 매진했다.

법민 스님은 2012년에 부산불교승가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생전 저서로 ‘불타의 진리’ ‘실천불교생활’ ‘진수’ 등 다수가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소외이웃 위한 백미 1000kg 후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한 백미 1000kg를 전달했다.

미소원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8일 미소원 법당에서에서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후원된 백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경로식당과 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유정 이사장은 “백중기도 끝마침을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불자들의 공덕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983년 자비원 봉사회로 시작해 2011년부터 사단법인 미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문현노인복지관 ‘여름보양식 나눔행사’

8월 14일 문현노인복지관서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문현노인복지관(관장 변정희)이 무더운 여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보양식을 마련했다.

문현노인복지관은 8월 14일 복지관내에서 ‘여름보양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나눔 행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과 복지관 이용 대상 어르신을 위해 준비했으며 녹두한방삼계탕과 나박물김치 150인분을 전달했다.

변정희 문현노인복지관 관장은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말복을 맞이하여 준비한 여름 보양식을 드시고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실록의궤 선양에 불교-지자체 힘 합친다

선양회·강원도·평창군 MOU 체결
실록의궤 선양사업에 적극 협력
선양회, 지역 축제 등 사업 추진
'사명당과 오대산 사고' 주제 세미나
정념 스님 "선양사업 첫 걸음"

춘천=신중일 기자



(사)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는 8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심재국 평창군수, 김진태 강원도지사, 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 이사장 퇴우 정념 스님.

지난해 110년 만에 환지본처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선양사업을 위해 불교계와 지자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조선왕조실록의궤선양회(이사장 퇴우 정념 스님, 이하 선양회)는 8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양회 이사장 퇴우 정념 스님, 김진태 강원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와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 이욱환 평창문화원장, 심천섭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양회와 강원도, 평창군은 각 기관·단체는 협약 체결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수행하는 한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퇴우 정념 스님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환지본처에는 지역과 불교계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선양하고 보존할 것인지가 숙제가 됐다"면서 "오늘 협약이 조선왕조실록·의궤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려 강원도 평창이 세계기록문화의 도시임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강원도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궤에 기록된 왕실 행사를 재현하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무엇보다 조선왕조실록·의궤의 가치를 바로 알리고 선양하는 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재국 군수도 "조선왕조실록·의궤가 평창군으로 환지본처하고, 오늘 선양사업을 위해 협약까지 맺게 돼 기쁘다. 평창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선양이 한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큰 사업이라 생각한다.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사업은 지난 3월 설립된 선양회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의궤 문화축제'를 비롯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학술연구, 홍보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퇴우 정념 스님은 "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 찾기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환수위원회'를 홍보와 교육 등을 총괄하는 '선양회'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선양사업 추진 체제를 갖췄다"며 "오는 10월 지역문화축제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위궤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시킬 다양한 선양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대산 사고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도 이뤄진다. 퇴우 정념 스님은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인 '평창 오대산사고'의 의미를 조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면서 "오는 10월 4일 오대산 사고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사명대사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수위에서 전환된 선양회는 지난 3월 28일 월정사에서 발기인 총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이사장으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국형사 주지 인광 스님 △고광록 법무법인 율곡 대표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사장 △김용래 평창군이장협의회장 △김풍기 강원대 교수 △백현주 전 국악방송 사장 △이욱환 평창문화원장 △지형근 한강시원지체험관 관장 △최상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이사로,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 고은채 글찬마루 대표가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봉은사·도선사, 방생으로 생명가치 되새기다

8월 19, 21일 담양 용흥사서
'백중회향 생명나눔 방생법회'





백중을 맞아 서울 봉은사(사진 왼쪽)와 도선사(사진 오른쪽)가 담양 용흥사에서 '백중회향 생명나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봉은사와 도선사가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갑진년 백중 회향을 맞아 8월 19일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백중회향 생명나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기념식과 천도재, 물고기 방생으로 진행돼,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 등 스님 20여 명과 김한종 장성군수, 정광선 담양 부군수 등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행사는 △헌공의식 △삼귀의 △찬불가 △육법공양 △봉은사 연합합창단 자비방생의 노래 △무공 스님 환영사 △원명 스님 인사말 △축사 △문화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방생법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늘 건강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용흥사는 조선 영조 대왕이 기도를 통해 태어난 유서 깊은 도량으로, 복덕과 영험한 기운이 남다른 곳이다"며 "오늘 동참한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은 8월 21일 담양 용흥사를 방문해 '백중회향 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방생법회는 상단기도에 이어 천도의식, 물고기 방생으로 진행됐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용흥사 방생에 참여해 주신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더운 날이지만 오늘 참여한 공덕으로 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은 "불과 20여 년 전 이곳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이었지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현재 많이 복원됐다"며 "큰스님들을 많이 배출한 영험한 도량이니,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흥사를 찾아 방생대법회를 봉행한 봉은사와 도선사는 신도들이 정성을 모은 공양미 300석(10kg 300포)을 담양군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육군 제35사단 군장병 수계법회

8월 17일 호국충경사서
수계장병 350여 명 동참



선운사는 8월 17일 호국충경사 대웅전에서 육군35보병사단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에서 호국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8월 17일 호국충경사 대웅전에서 전북지역 향토사단 육군 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 소장, 이하 35사단)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 전계사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교수사로 선운사 강주 혜수 스님, 갈마사로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이 나서서 35사단 장병 350여 명에게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설했다. 장병들은 스님이 계목을 설할 때마다 큰 소리로 계율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원했다.

전계사 경우 스님은 "보살계경에 따르면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한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보호하고 살펴주신다"며 "수계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계를 지킴으로 안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병영생활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회에 참석한 서성진 일병은 "불교를 잘 모르다가 군에 입대해서 불교를 알고 수계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며 "선운사의 군장병에 대한 큰 관심을 군 생활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

8월 16일 문수사 대웅전 앞서



고창 문수사는 8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문수도량 고창 문수사(주지 태효 스님)가 경내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창 문수사는 8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대웅전을 보존·활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성보가 후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수사 대웅전의 보물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와 주신 스님들께 감사하고 보물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태효 스님이 문수사 주지가 되신 이후로 문수사가 더욱 발전하고 있어 새삼 인연의 지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물지정서를 전달하고 "문수사 대웅전을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거쳐 국가유산청을 대신해 보물지정서를 전달하게 됐다"며 "문수사의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숲, 문수사 대웅전 삼존불 등 문수사의 많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하 대종사 "돌아보니 불국토"

수덕사 하안거 해제법회 봉행



갑진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가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8월 17일 경내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본말사 스님을 비롯해 덕숭총림 소속 사찰에서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친 156명의 선원대중과 외호대중이 동참했다.

우송 달하 대종사는 해제 법문에서 "돌아보니 불국토요, 앉으나 서나 대적삼매, 눈 뜨면 지심바다다"며 "순간순간 새 천지요, 처처가 바라밀이로다"고 법어를 내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백양사, 광주정광중에 팥빙수 나눔

8월 16일 600여명에 전달



백양사가 무더위 속에 개학을 맞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시원달콤한 팥빙수를 전달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8월 16일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손잡고 불교종립 광주정광중학교(교장 정경금) 소속 6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여름철 별미인 팥빙수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이날 학교 로비에서 나눠줄 예정이었던 팥빙수는 무더위와 소나기를 우려해 급식실에서 진행됐다.〈사진〉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무더위 속 개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스님들이 직접 만든 팥빙수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무더위를 날리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금선암, '전주함께라면' 자비나눔

8월 17일 라면 100박스 전달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이 백중을 맞아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전주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과 신도들은 8월 17일 백중기도 기간 동안 우란분절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사진〉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전액 기부로 진행되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신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은 라면이 누군가에게 작은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고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좋은우리절, 파두마 스님 환영법회

8월 18일 대법당서…전북 스리랑카인 지원 예정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 스님)이 8월 18일 경내 대법당에서 스리랑카 파두마 스님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환영법회에는 스리랑카 파두마 스님을 비롯해 소비타 스님, 참좋은우리절 태산 스님 등과 차마라 반티 전북스리랑카인회장, 김유나 (사)착한벗들 사무국장, 전북지역 스리랑카 노동자, 이주민과 가족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참좋은우리절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불자를 위한 영적, 심리적 안식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파두마 스님은 앞으로 참좋은 우리절에 상주하며 매주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모악산 인문학교실' 개설

9월 7일까지 강좌 진행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8월 17일 경내 보제루에서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모악산 인문학교실'을 열었다.〈사진〉

'모악산 인문학 교실'은 금산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등계단(보물 제26호), 석등(보물 제828호), 대장전(보물 제827호) 등 국가유산이 신앙의 대상을 넘어서 현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모악산 인문학 교실을 통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채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국 에든버러대, 불교학 석사과정 신설

학제 간 융합연구 중심 교육
전문성 갖춘 교수 대거 포진
실용적인 프로젝트 참여로
불교 연구 선도 대학 목표

김민재 객원기자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 전경. 사진 출처=위키미디어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에든버러대에 불교학 석사과정이 신설됐다. 지난 8월 13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영국 에든버러대 불교학 석사과정 신설 소식을 전했다.

에든버러대학은 학제 간 연구를 제공하는 불교학 석사(Master of Science)과정을 신설했다. 불교학 석사과정은 에든버러대학 내 다양한 분야에 포진된 교수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교 철학, 불교 윤리, 불교 미술, 불교 문화, 불교 문헌 및 현대적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고안됐다.

불교학 석사과정 학과장 폴 풀러 박사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불교학 석사과정은 에든버러 대학에서도 매우 독특한 다양성을 가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면서 "초대 학과장으로서 지리적, 언어적, 역사적 관점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불교학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뛰어난 수준의 학문을 견고히 완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사과정은 광범위한 불교 개론과 심화 전공을 모두 제공한다. 핵심 과정은 △불교 연구 구상: 방법과 주제(20학점) △불교 신앙와 종교학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10학점) △불교학 연구 방법(10학점)이 포함되며 대학원생은 1만 5000단어 분량의 논문(60학점)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실천 불교, 상좌부불교, 불교 윤리학, 히말라야의 예술과 불교 신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80학점)이 개설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과 역사적 시기에 걸쳐 변화한 불교의 다각적 측면을 탐구할 수 있다.

초기 인도 종교학 박사 나오미 애플턴 교수는 "에든버러대학은 학문, 지역, 시대 및 주제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교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양한 교수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실천 불교 강의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불교 유물을 탐구하거나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되는 강의 중 하나이다. 학생 스스로 연구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학제 간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에든버러 예술대학의 야샤스위니 찬드라 박사는 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특히 인도의 예술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찬드라 박사는 "현재 불교는 인도에서도 쇠퇴하였으나 인도 예술과 문화, 역사, 정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라면서 "불교 미술 강의를 통해 인도에서 동아시아까지 불교 예술과 문화 전파 과정을 가르칠 것이다. 불교 문화 교차로의 역할을 한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강의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언어문화 연구원인 아비가일 맥베인 박사는 "에든버러 불교학 석사과정은 종교 연구의 본질은 '학제 간 연구'가 근본적인 원칙으로 신설된 학과"라면서 "불교가 전근대 동아시아에 문학, 사상, 예술, 음악, 의식 등 문화적 표현의 교류를 촉진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폴 풀러 학과장은 "첫 불교학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만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으로 구성했다"면서 "우리 교수진은 불교 사상과 관습이 아시아와 현대 문화 형성에 이바지한 점을 상기하고 미래에 불교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달라이라마, 수술 후 첫 일정 개시

뉴욕 이타카 소재 남갤 사원 방문


이타카 남갤사원에서 연설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자유 아시아 방송

지난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가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나섰다. 지난 8월 16일 달라이라마는 회복을 위해 머무르던 시러큐스시에서 뉴욕시로 돌아가는 도중 이타카시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 사원인 남갤사원을 방문했다. 1시간 남짓한 방문에 달라이라마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달라이라마의 첫 행보에 대해 '자유 아시아 방송' '더 이타카 보이스' 등이 특별 보도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타카 남갤사원에 도착한 달라이라마는 남갤사원의 상주하는 스님들과 인도 남갤사원의 전 방장인 탐톡 린뽀체의 영접을 받았다. 이타카 남갤사원은 "지난해 남갤사원에 새롭게 완공된 달라이라마 도서관과 불교학 연구소 개관을 기념해 사원을 방문해 주시길 요청했다"며 달라이라마의 방문 계기를 전했다.

달라이라마에게 헌정된 도서관과 불교연구소는 2023년 9월에 개관했으며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담긴 4만 시간 분량의 디지털 오디오 아카이브, 약 4천권의 불교철학서, 이외에 인도와 티베트에서 수집된 불교 유물이 수장돼 있다.

이타카 티베트 협회 회장인 땐진 최끼는 "이곳은 달라이라마의 개인 사원인 인도 남갤사원의 공식분원이다. 또 이타카는 미국에 망명한 1세대 망명 티베트인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인 만큼 달라이라마께서 방문해 주시길 고대했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가 마지막으로 이타카 남갤사원을 방문한 것은 2007년이다.

달라이라마는 짧은 연설에서 "제가 난민이 아니었다면 티베트 라싸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명을 통해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본질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는 하나이며, 저는 물론이고 모두는 각각 다른 이들로부터 연민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며 항상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엔 '월 1회 클럽' 변신하는 법당 있다

법요 · 정기행사 지키며 이벤트
"모두에게 열린 절 되길 바래"


클럽으로 변신한 만류지 법당에서 공연하는 뮤지션들. 사진출처=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일본 나가노현 스자카시에 소재한 고찰 만류지(満龍寺). 최근 사찰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젊은 세대들의 인기를 끌어 화제다. 지난 8월 16일 일본의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은 만류지의 사찰 클럽 '우츠츠'에 대해 보도했다.

매월 초하루 저녁이 되면 만류지의 법당과 마당은 클럽과 플리마켓으로 변신한다. 법당에는 미러볼과 선명한 조명들이 설치되고 뮤지션들의 공연들이 진행된다. 일반 사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017년 10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 중인 만류지 주지 다카츠 켄지 스님은 "종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절에 발길을 옮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획의도를 전했다.

켄지 스님은 전대 주지인 일본인의 아버지와 독일인의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출가하여 만류지를 이으려 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2010년 독일로 건너갔다. 약 5년 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 농장과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다양한 체험을 했다.

스님은 "독일에서 오래된 공장이나 폐선을 개조한 클럽, 레스토랑 등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한 건물들이 많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래된 것을 소중히 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가치관과 행동에 큰 인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귀국 후 독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접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열린 사찰을 지향하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신도회와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새로운 사찰 운영 방식에 찬반이 갈렸다. 보수적인 신도회와 특히 전전대 주지스님인 켄지 스님의 할아버지가 격렬히 반대했지만, 끝내 켄지 스님의 진지한 생각에 찬성을 표했다.

현재 만류지는 전통적인 법요와 정기행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이벤트들을 속속들이 진행하고 있다. 그중 매월 초하루 저녁에 열리는 클럽법당 '우츠츠'는 가장 큰 행사다. 미러볼로 본당을 비추고 DJ가 음악을 믹싱하는 등 각종 이벤트로 가득하다. 켄지 스님은 "초하루는 지난 달의 끝이자,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재출발의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내일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 국립대, 불교학 연구회 출범

교직원 · 학생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강의로 지식 제공도


NUS 불교학 연구회 공식 출범과 '부처의 많은 얼굴' 전시회 참석자들. 사진 출처=테멘공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지난 8월 12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불교학 연구회 출범 소식을 전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는 8월 3일 불교학 연구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불교학 연구회는 예술사회과학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자발적결사체로 공동 연구를 통해 학자와 대중이 불교에 대한 공동 학문적 탐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목표로 한다.

불교학 연구회 창립 의장이자 NUS 역사학과 잭 멩 탓 치아 부교수는 "싱가포르는 동서양 불교학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 "NUS 불교학 연구회는 학술 연구와 지역 사회 참여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럽, 미국의 불교 연구회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업적을 본받아 더욱 뜻깊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창단 경위를 밝혔다.

NUS에는 불교학과나 불교학 강의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수불자회와 외래교수불자회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비공식 불교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불자 교수의 기여로 대학 내 불교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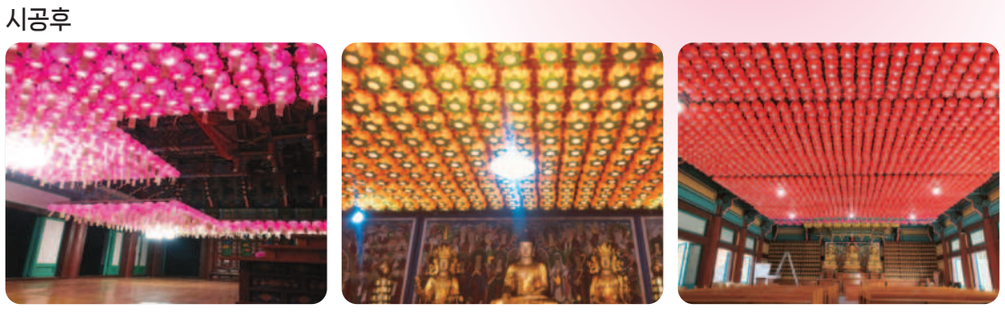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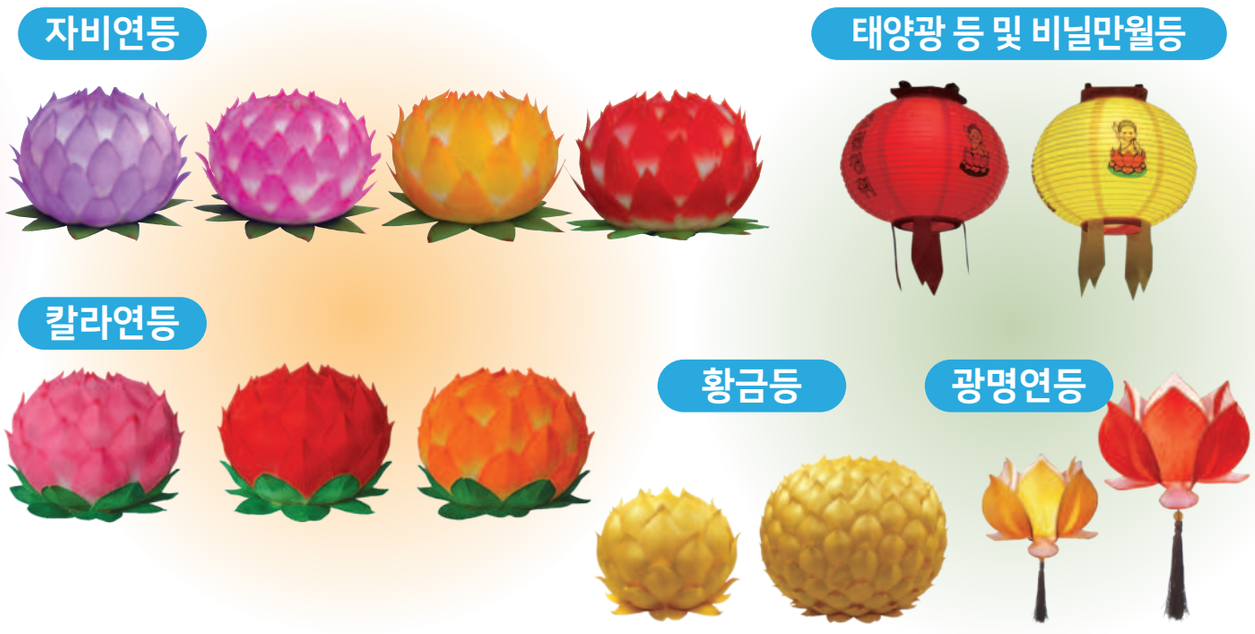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유연한 몸·건강한 마음, '행복'으로 이끈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으로 꼽히는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참가자들이 맨발 걷기를 하며 온전히 자연을 느끼고 있다.



잔디에 누워 명상을 있는 모습.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경 스님이 사찰 안내를 하고 있다.

월정사 선명상 · 요가 템플스테이 현장

진부 월정사=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제 뇌 구조는 90%가 아들, 10%가 남편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을 못 잡는 막내동생을 위해 네 형제가 함께 신청했습니다."

"집사람 따라 얼떨결에 왔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생각을 비워보려던 차에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합니다. 템플스테이도 하고, 비로봉 정상도 찍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참가자가 오대산 월정사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이유를 들려줬다.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또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놓기 위해 저마다 사연으로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년의 숲길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갖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는 3박 4일 동안 선명상과 요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중대 사자암과 적멸보궁 참배, 발왕산 숲명상 등 일정 곳곳에 특별 프로그램을 배치한 점도 돋보인다. 호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접수 첫날에만 무려 20여 명이 신청했을 정도다.

8월 15일, 참가자들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7시간씩 운전해 월정사에 도착했다. 서로 눈인사도 잠시, 입재식에 이은 첫 일정은 사찰 안내다. 참가자들은 일주문부터 도량 구석구석을 돌며 창건 역사를 설명하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경 스님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적광전 외벽에 도달하자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그린 심우도 벽화가 눈에 띄었다. 지경 스님은 "심우도에서 검은 소는 분별, 미완성을 뜻한다. 우리는 마음속에 검은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있다"며 "나를 찾는 건 오직 나의 몫이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땐, 완전한 흰 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곧이어 문수선원에서 3박 4일을 함께 보낼 도반들과 어색함을 푸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짧은 자기소개와 일정 공지가 오갔고 소원등 만들기가 진행됐다. 각자 소원지에는 개인의 행복, 가족의 건강 등 각자 이루고자 하는 발원을 빼곡히 적어갔다.

완성된 소원등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전나무숲길로 향했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으로 꼽히는 월정사 전나무숲길에는 1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그늘숲을 만들어준다. 참가자들은 달빛과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벗 삼고, 앞사람에 의지해 1.9km를 포행하면서 온전한 자연에 빠져들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경내 팔각구층석탑 탑돌이까지. 깊이 있는 수행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각하기 충분했다. 부산에서 온 강주형(32) 씨는 "도시에서 번잡하게 생활하다 묵언하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보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튿날 새벽 4시, 참가자들은 비몽사몽한 상태로 새벽예불에 참여했다. 절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연발했지만, 곁눈질로 스님을 열심히 따라 하며 부처님 전에 손 모았다.

8월 15~18일…전국서 35명 동참
새벽 요가로 몸·마음 균형 되찾아
걷기 명상·싱잉볼 명상 등 체험도
"나를 찾아가는 기회" 만족도 최상



입재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

법륜전으로 이동하니 요가 매트와 좌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심신을 깨우고 균형을 되찾는 '요가·선명상' 시간이다. 금하·선경 스님의 지도로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시작되자 긴장이 풀리고 근육도 서서히 이완됐다. 금하 스님은 "옴" "아" "하"를 외치며 머리와 단전,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동에 집중해볼 것은 요청했다.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요가에서 배운 호흡법은 참선에서도 활용했다. 몸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명상에 몰입했고, 그 저 존재하는 이 순간을 알아차리면서 내면을 차분하게 정돈했다. 금하 스님은 "요가는 몸에 쌓인 독소를 빼고, 생각을 고요히 하는 디톡스 같다"며 "현시대에 가장 필요한 실천이다. 5분간 요가하는 습관을 체득하면 삶을 건강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른해진 몸을 일으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금강교에서 해탈의 숲을 거쳐 도착한 잔디밭. 요가매트를 깔고 누워 선명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간혹 나뭇잎 사이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따스함도 전한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숨소리 마저 하나가 된 자연의 리듬만이 이 순간을 가득 메웠다.

김선희(65) 씨는 "아침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염불 기도만 30년을 했는데, 월정사에서 '명상'을 처음 알게 됐다"며 "조금씩 조금씩 명상으로 젖어 들어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격이 급하고 쉽게 욱하는데 명상으로 다듬어 보겠다"고 밝혔다.

월정사 교육국장 도원 스님(월정사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 총괄)은 "선명상과 요가는 유연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갖추게 하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라며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스스로 본마음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박 4일간 전나무숲 맨발 걷기와 싱잉볼 명상, 자각명상, 108배, 스님과의 차담, 요가를 마음껏 체험한 참가자들은 알찬 프로그램 구성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들은 '나에게 쓰는 편지 낭독'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내면을 재확인했다.

"수고했다. 모진 풍파 다 헤쳐가며 꿋꿋하게 버텨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그랫듯이 앞으로의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다. 힘내고, 사랑한다. 월정사 템플스테이에서."

"월정사에서 3박 4일 간 지낸다고 했을 때 다들 의문을 지었지만 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 템플스테이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줄 거라는 것.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숲명상과 싱잉볼이 경이로운 순간을 선사했고, 쏟아질 듯한 별들이 황홀함을 선물했다. 물론 좋은 인연들도. 이번에 배운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새기며,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하자."

한편, 그간 월정사는 '선명상·요가 학교'라는 명칭으로 2023년부터 7박 8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이번부터는 대중 참여를 늘리기 위해 템플스테이와 접목, 기간도 단축했다. 향후 월정사는 한 달에 1번 '월정사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를 열어 국민의 정신 건강 향상과 선명상 대중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분별도 걸림도 없는 자유로운 삶 살라"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 입재 법문



"우리는 항상 머무름 없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자유로운 해탈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8월 15일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에게 이같이 당부를 전했다. 정념 스님은 "이번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 주제가 '천년의 숲속에서 나를 찾는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 자기 자신의 주체는 자신의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규정하고,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나, 너, 만물, 각종 이름이라는 분별을 만들어 낸다"며 "분별이 다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 세계가 둘이 아니고, 이름에 집착하거나 규정된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분별의 세계에서는 갈등, 고민, 고통 등이 소멸될 수 없다. 복잡다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그림자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분별에서 집착하지 않는 삶을 이뤄야 한다"며 "나를 찾는다는 것은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고, 육도윤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지향하는 근본적 가르침"이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해탈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선 '수행'이라는 방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님은 "사실 우리는 구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이미 있는 그대로 완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분별과 업력에 의해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근기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내가 지극하게 간절하게 발심하느냐에 따라 본래 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가'의 장점도 소개했다. 정념 스님은 "뇌와 몸은 모두 서로 연결돼 일어나는 의식의 매커니즘"이라며 "요가는 몸속의 생화학물질 분비를 원활하게 조절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더 성성하게 삼매로 이끈다. 특히 항상 긍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안내했다.

스님은 모든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 진리는 결국 '원이삼점(圓伊三點)', 즉 '삼보륜(三寶輪)'에 있다고 했다.

"삼보륜은 팔만대장경을 압축해 표현해낸 것입니다. 각 점은 법신, 반야, 해탈을 말합니다. 법신은 가장 맑은 진리의 본체이고, 반야는 거울에 비치듯 지혜롭고 유연하게 잘 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해탈은 안의비설신의가 봐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거슬리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 공능을 갖출 때 더 평안해지고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념 스님은 "현시대에서는 몸 건강을 잘 챙겨야 정신 건강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며 "아름다운 오대산 자연에서 2박 3일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일심삼득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도 마음껏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마음 '이와 같이' 둘 때 온전한 휴식 이뤄"

자연명상마을 원장 해조 스님 특강



자연명상마을 원장 해조 스님이 월정사 '선명상·요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다. 분주한 일상에 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일러주기 위해서다.

해조 스님은 "우리는 온전히 쉬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그런데 쉼을 이루기 위해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변함없는 '이와 같이'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있지 못하는 건,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도 알아차리는 순간, 흘려보낼 힘이 생긴다.

스님은 "사회생활 중 누군가 자신을 욕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또는 좋지 않은 기억들 트라우마들이 올라올 때 부정적인 마음이 움직인다"며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해소된다. 생겨난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이 감정, 이 마음이 뜬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 때 사라진다"고 말했다.

"우리의 괴로움은 지나가는 그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한 해조 스님은 "생각도 감정도 흘려보내고,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평화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해조 스님은 "내가 평화롭고 자비로워지면 남도 평화롭다. 모든 게 무상한 것임을 알고 놓아주고, 보내버려야 한다. 그것이 알아차림이고,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며 "명상 등의 기법을 활용해 마음 내려놓는 방법을 연습한다면, 좀 더 만족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만해 회갑연 ‘수연첩’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김광식 전 교수, 〈한마음연구〉 게재 논문서 제언

1939년 만해 스님 회갑연 조명해
서울 비구니 사찰 청량사서 열려
청량사, 당시 행사 · 휴식처 각광
주지 자영 스님, 궁중요리도 유명
회갑연, 당대 문인 · 유명인 참여
“청량사, 수연첩 등 연구 필요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39년 8월 26일(음력 7월 12일), 서울 비구니 사찰 청량사에서는 특별한 연회가 개최됐다. 당대 최고 문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만해 한용운 스님의 회갑연이 열렸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대 문인과 민족운동가, 지식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각자의 글귀를 적은 서첩(書帖)도 남겼다. 이 서첩은 ‘만해수연첩’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만해 스님의 회갑연은 당대 문화사와 만해 스님 인물관계도 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면밀하게 고찰한 연구논문이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제13호에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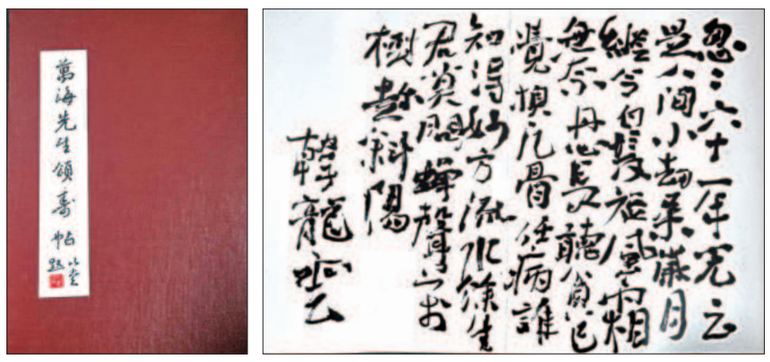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게재 논문 ‘만해 한용운 회갑연과 청량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회갑연의 전말을 살폈다.

먼저, 김 전 특임교수는 만해 스님과 청량사의 관계를 조명했다. 당시 신문 및 잡지 기사들에 따르면 청량사는 경성 사람들의 피서 사찰이자, 문인과 불교인들의 행사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조선불교중앙청년회 발기인 총회가 청량사에서 열렸고, 이병기·이은상·이기영 등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장소도 청량사였다.

청량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비구니스님들 중에 김 전 특임교수는 1929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았던 신자영 스님을 주목했다. 고은 시인의 〈만해 평전〉에 따르면 신자영 스님은 한말(韓末) 궁중 후인으로 왕과 왕비의 수라상을 책임졌던 궁중요리 전문가였고, 평소에도 만해 스님을 존경해 용채를 제공하며 후원했다고 했다.

김 전 특임교수는 “신자영 스님이 만해 스님을 존경해 후원했다는 정황은 스님의 회갑연이 청량사에서 열리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만해 스님의 회갑연을 주도한 인물은 누굴까. 남겨진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인물은 ‘박광’이다. 김 전 특임교수에 따르면 박광은 만해 스님의 동지로 비밀결사 대동청년단원이었고, 의열단·임시정부를 후원한 독립운동가였다. 1930년대 초반 경성에서 거주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이때부터 만해 스님과 동지가 됐다. 1935년 심우장 건립 당시 후원했으며, 1944년 만해 스님 원적 시에도 조문했다. 만해 스님의 사후에 스님의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기도 했다.


‘만해수연첩’ 표지(사진 왼쪽)와 만해 스님이 회갑을 맞아 소회를 담아낸 글.

김 전 특임교수는 “〈한용운전집〉과 김관훈의 글에 따르면 만해 스님의 회갑연 주최자로 박광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광을 회갑연의 중요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만해수연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서첩은 천재 소설가로 이름을 떨친 홍명희였다”고 밝혔다.

만해 스님 회갑연에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3.1운동 민족대표 권동진·오세창과 안종원 양정고보 교장, 임정특파원 이병우, 독립운가 이경희, 홍명희 동아일보 편집국장(소설 〈임꺽정〉 저자) 등과 만해 스님의 아들 한보국도 참석했다. 이 회갑연에서 만해 스님은 7언 율시의 한시로 자신의 감회를 담아 서첩에 썼다.

이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해 김 전 특임교수는 “청량사와 만해의 역사에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인 ‘만해수연첩’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의 관심을 요청한다. 나아가 수연첩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량사의 비구니 대중과 주지인 신자영 스님에 대한 자료 수집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자영의 생애, 출가 동기, 사진, 사찰음식에 대한 비화와 일화 등이 중요하다. 이런 바탕 하에서 청량사 사지가 자료집 차원에서 출간돼 한다”고 제언했다.

사찰음식체험관 재개관 이벤트 ‘풍성’

9월 1일 재개관…선재 스님 특강
사찰점심밥상 · 사찰음식명상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사진〉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9월 1일 재개관을 기념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조리시설과 에어컨, 온수시설 등을 전면 교체했다.

문화사업단은 재개관일인 9월 1일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 선재 스님 특별 강좌에서는 가을에 걸맞는 머위대도토리 전과 방아잎 된장찌개 등의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일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금요일 사찰점심밥상과 사찰음식명상이 준비돼 있다. 사찰점심밥상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점심공양도 함께할 수 있는 강좌다.

9월 한 달간 체험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기념품을 증정하고, 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시원한 오미자 시음코너도 마련된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수강생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새롭게 재개관하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양윤정 작가 ‘빛으로 가는 길’ 개인전

한국불교미술협 올해의 작가
9월 4~9일, 선아트스페이스서


양윤정 작가의 ‘빛으로 가는 길’.

한국불교미술협회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양윤정 작가가 개인전을 연다.

양윤정 작가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빛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그린 심우도를 모티브로 작가가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에 담아 선보인다. 작품은 종이, 모시, 삼베 등의 다양한 매체 위에 분채를 여러 번 칠해 색을 덧대고, 금박·금분으로 마무리했다.

대표작으로는 채색화에 금분을 뿌리고 금박을 붙여 완성한 ‘빛으로 가는 길’과 하늘에서 진리의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꽃비’,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모습을 표현한 ‘빛을 전하다’ 등이 있다.

양윤정 작가는 “빛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찾으며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다. 빛은 그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깊이 관조하면 어느새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며 “‘빛’을 탐구하며 그린 그림을 한데 모아 ‘빛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인전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작가는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보는 이 스스로 빛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닫힌 문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빛의 세계를 만나 진리를 꽃피워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미술을 전공한 양윤적 작가는 2022년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인전 ‘玄門(현문)’을, 2024년 단체전 ‘화엄, 빛으로 그리다’를 선보였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불교미술협회전 ‘각각형상’, 2021년 아라아트센터에서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개설 50주년 기념전 ‘백년을 그리다’, 2020년 갤러리 한옥에서 ‘이공전’ 등에도 참여했다.

김내영 기자

불갑사 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8월 22일 지정 공고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도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등 불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8월 22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정현(正玄), 해심(海心) 등의 조각승들이 1654년(조선 효종 5) 완성해 불갑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발원문을 통해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상 등 모두 27구의 존상이 제작되었음이 확인됐다.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 그대로 전해져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海南 隱跡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 사실적인 인체 비례, 추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양식 등 신라 9세기대의 시대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귀 등 일부 세부표현에서 고려 초기적 요소도 관찰된다. 특히 종교적 숭고미가 잘 표현된 표정의 예술적 완성도도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행정의 자세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5차분 12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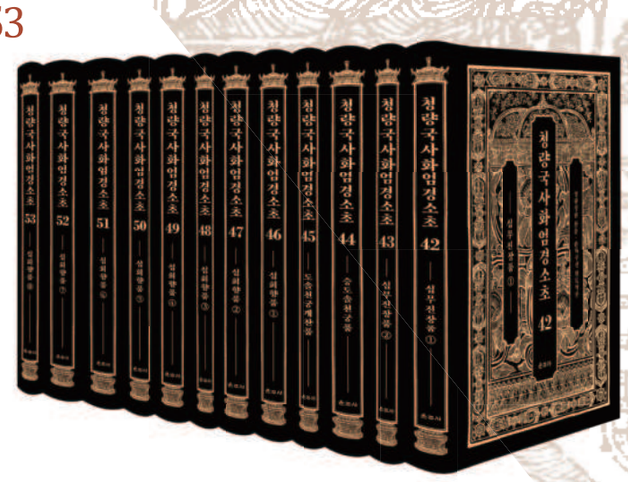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53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22 십무진장품부터 제23 승도솔천궁품, 제24 도솔천궁게찬품, 제25 십회향품까지 12권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1~8/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절수행입문(불교수행입문2)	교육원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2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8	사람이 부처님이다(법화경이야기) *법공양7	무비	불광출판부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 *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법구경 이야기(1) 법구경주석서	무념, 응진 역	옛길

범패 원음, '붓다의 음성'…범패 시작, '붓다의 말씀'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인류학
윤소희 지음
민족사 / 3만8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나름 대접받는 엘리트였던 범마유가 석가모니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복하여 그 음성을 일러 '범음성'이라 하였다. 붓다의 음성은 말씀의 씨앗이 인체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파동이므로 그 말씀의 궁극은 태초로 거슬러 간다."

신간 〈음악인류학〉은 음악과 사람, 종교와 문화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음악문화는 고대사에서 근현대사까지 아우르고 통섭하며 불교음악으로 귀결된다. 이 책은 저자인 윤소희 교수의 연재 칼럼 '불교와 세계 종교'를 묶은 것으로, 저자가 세계를 여행하며, 다른 문화권의 종교음악과 비견되는 한국의 음악을 폭넓게 탐색한다. 여러 나라의 종교와 음악을 경험하며 이해를 돕는 이미지와 직접 촬영한 사진도 볼거리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어체의 문장에서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학문적 음악탐구는 '붓다의 소리(梵音聲)'에 방점이 있다. 제1장에서는 인도·중국·한국을 통섭하며, 각국의 문화와 종교, 음악을 이야기한다. 인도의 음성행법과 붓다의 범음성을 이야기하고, 유교와 도교의 제사와 음악, 중국 음악과 서역의 음악, 조선의 악정(樂政), 한국인의 기질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기독교·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아우르고 분석하며 붓다의 소리를 찾아 나선다. 아라비아와 인도의 만남에서 비롯된 수피 춤, 기독교와 불교음악, 한국과 일본의 풍속과 음악, 사찰 주악도와 주악도 속의 악기들, 한국 범패의 미래 등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붓다야말로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한 음유시인이며, 가장 매력적인 가수이자, 초대 어장(魚丈)"이라며 "범패의 원음이 붓다의 음성이며, 범패를 잘하는 비결로는 미성이나 기교, 잇속을 위해 노래하면 세속이 가수이지 출세간의 어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붓다의 말씀 중 그 율조가 가장 유려한 것은 '가타(gatā, 詩)'이다. 가타는 '노래하다'는 산스끄리뜨 어근 '가우(√gau)'의 명사형으로 법언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이었던 데서 비롯된다. 가타를 모아 놓은 〈법구경〉은 붓다의 노래 모음집이라 할 만큼 운율이 아름답다.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을 소리로 기록한 빠알리 경전을 외는 남방스님들의 수행처에서는 수시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점에서 석가모니는 출세간의 음유시인이자 인류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싱어(singer)이며, 범음성의 초대 어장(魚丈)이었다."



통도사의 당비.

세계 돌며 한국 음악 폭넓게 탐색
'붓다의 소리'서 학문적 탐구 시작
"붓다의 소리, 단순한 음악 아닌
인연법에 따른 진리를 설한 것"
"한국인 DNA에 불교음악 내재"

따라서 범패의 원음은 '붓다의 음성'이고, 범패의 시작은 '붓다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책에 따르면 범패의 원음이 붓다의 음성이듯이 범패를 잘하는 비결 또한 붓다와 같이 내면의 청정함과 수행의 내공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패 가사를 노래하더라도 법언보다 창자의 미성이나 기교 혹은 특정한 잇속을 위해 노래한다면, 그 사람은 세속의 가수이지 출세간의 어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붓다의 소리를 단순한 음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연법에 따른 자연과 인간의 진리를 설한 소리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진여를 밝히기 위하여 세계의 종교음악과 불교를 화두로 인류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음악을 좋아한다. 흥이 넘치고 떼창을 즐기며 열광하기를 좋아한다. 세계 음악계를 압도하는 한국인의 음악적 재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자는 한국인의 유전적 DNA에 2천 년 동안 우리 문화의 뿌리였던 불교음악이 있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칼럼 지면의 한계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사진 자료를 대폭 보완하여 다른 문화권의 종교음악과 비견되는 우리 음악을 폭넓게 탐색하고 있다. 세계 음악계를 압도하는 한국인의 음악적 재능에는 200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며 한민족 문화의 뿌리가 된 불교음악이 있다. AI 시대 한국의 범음성으로 치유와 명상, 기쁨과 환희, 분노와 슬픔을 풀어내고, 멋지고 품위 있게 잘 놀기 위하여 이 책을 세상에 내어본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저자인 윤소희 교수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우교수로 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를 다니며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로 학문적 성과를 일궈가며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국악 창작곡 분석〉·〈국악 창작의 흐름과 분석〉·〈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등이 있다.

군더더기 없는 직역으로 〈화엄경〉을 쉽게…



〈화엄경소론찬요〉 17~21권
혜거 편저 / 불광출판사 / 3만원

혜거스님 〈화엄경소론찬요〉 17~21 출간
80권본 39품 중 27품부터 38품까지
2025년 완간 예정, 2024년 앞당길 수도

혜거 스님 〈화엄경〉 역경의 또 다른 대작불사 〈화엄경소론찬요〉 17권부터 21권이 출간됐다. 2016년부터 출간을 시작한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역경 불사는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화엄경〉의 개요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일곱 곳에서 아홉 번 설하신 〈화엄경〉은 워낙 깊고 오묘한 데다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불교에 해박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다.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책으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한 것이다. 이 방대한 해석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축약하여 동시에 풀어주고 있어 〈화엄경〉의 묘체를 밝혀주는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이다.

혜거 스님은 이 〈화엄경소론찬요〉를 대본으로 하고, 다시 탄허 스님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로 편저했다. 혜거 스님의 번역은 군더더기 없는 직역을 특징으로 한다. 번역 당시의 유행하는 문체로 번역을 하면, 이삼십 년만 지나도 그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화엄경〉 역경 대작불사의 첫 결실을 맺은 〈화엄경소론찬요〉 1·2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세주묘엄품'에 해당하며,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1권부터 제11권까지의 분량이다.

이번에 간행된 17~21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27품(십정품)부터 38품(이세간품)에 해당하며,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74권부터 제97권까지의 내용이다.

혜거 스님의 이번 역경불사는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현토하여 2025년 2월에 총 26권으로 완역될 예정이다. 하지만 혜거 스님에 따르면 이번 불사가 예정보다 좀 더 빨리 회향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세납 80세인 혜거 스님은 "날이 갈수록 알게 모르게 기력이 쇠하니, 나이가 더 들면 완역을 마무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그래서 더욱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10년 예상했던 완역 출간 계획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4년 2월에 마지막 26권을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으로 인해 〈화엄경〉에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를 권한다.

박재완 기자

K-팝에는 불교음악이 있다?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코리안 떼창의 진원지는 사찰 악가무일까?
한국의 예수재와 이집트의 사후 심판은 어떤 관계?
염주로 꿰어보는 수능 금지곡과 수피 춤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윤소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우교수로 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는 《국악 창작곡 분석》《문명과 음악》《세계 불교음악 순례》《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한·중 불교의례와 범패》 등이 있다. 연구논문 《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범어범패의 율적 특징과 의례 기능》《불교 의례활동과 사원경제》《삼국유사의 음악과 악기》《티벳 참 의례와 몸짓 만다라》《보로부두르 주악도와 한국의 불교 악가무》《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중·일 율조 비교》 외 다수가 있다.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고졸한 다실에서 깨달음을 얻다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모르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목포 달성사 주지 보각 스님

“깨달음, 사회에 나눠야 진짜배기 불교입니다”



보각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1994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시작으로 원주 소쩍새마을과 상락원, 자제공덕회 등을 불교계 대표 복지시설로 성장시켰다. 2019년 7월 정년퇴임 후에도 ‘영원한 현역’ 으로 활동하며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현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과 목포 달성사 주지로서 포교와 수행에 진력하고 있다.

목포와 불교는 다소 어색하다. 큰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불심(佛心)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듣기 쉽지 않다. 그래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중들은 많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던 여름날, 목포행 기차에 올랐다. 목포와 호남불교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도착한 곳은 목포의 심장 유달산. 목포의 다른 이름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목포의 역사, 호남의 문화와 함께해 온 곳이 바로 유달산이다. 산의 크기는 다르지만 목포를 호령하는 기세는 지리산이나 설악산의 그것 못지않다. 유달산 조각공원과 달성공원을 거쳐 달성사로 향했다. 달성사는 목포팔경(木浦八景) 중 제8경 ‘달사모종(達寺暮鍾)’ 즉, 달성사의 종소리를 간직한 사찰이기도 하다.

성곽처럼 솟아 있는 입구를 지나 들어가니 아담한 절이 나온다. 극락보전과 명부전, 종각, 종무소 등의 전각 몇 채와 석탑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달성사에서 목포 시내와 바다를 눈에 담고 잠시 마음을 고른 뒤 주지실의 문을 두드렸다. 큰 키와 호탕한 웃음을 장착한 보각 스님이 반갑게 손을 내밀어 준다.

부처님, 대흥사, 달성사

“달성사는 대흥사에 계시던 선대스님들이 목포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극락보전 부처님은 강진 백련사, 법당 종은 대흥사 만일암, 지장보살은 나주 운흥사에서 모셔왔어요. 대흥사 차원의 지원과 노대련 선사의 원력으로 태어난 곳이 바로 달성사입니다.”

보각 스님은 2022년 가을부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중앙승가대에서 평생 후학들을 가르친 뒤 강진 백련사 주지 소임을 거쳐 계속해서 포교와 전법에 진력 중이다.

달성사에서 스님은 매월 초하루와 초삼일에 법회를 열어 불자들을 만나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목포불교대학에서 강의한다. 또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는 목포교도소에서,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는 화성교도소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스님들의 기본 임무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이 포교이니 인연 따라 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도 전법이었습니다. 하하.”

스님의 출가본사는 대흥사다. 현대 호남불교의 중흥조로 존경받는 천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스님의 출가는 어쩌면 필연이었던 것 같다.

“저는 태몽부터 남달랐습니다. 하하. 어느 날 가사장삼을 수한 노스님이 산에서 내려와 바랑을 열어 큰 목탁을 꺼내 주셔서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시는데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 어머님 앞으로 와 ‘향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향내 나는 아들이 있네’라고 했답니다. 그 무당이 저의 출가를 예언한 셈이죠.”

불교 궁극적 목적은 ‘중생구제’
그 구체적 실천행이 ‘사회복지’
‘직업 승려’ 비판, 부끄러운 일
보살행 실천하는 수행자가 돼야

불공, 전각서 목탁 치는게 아냐
중생 행복케 하는 게 곧 ‘불공’
깨달음, 중생에 회향돼야 의미
“사회복지가 바로 불공의 실천”

스님은 7남 1녀 중 여섯째다.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절에 자주 다녔다.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를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이웃을 잘 돌볼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광주로 나갔습니다. 그때 너무 추워서 어머니가 당신이 입으시던 빨간 내복을 빨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광주 시내 구경을 하면서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거지 아줌마가 어린 애를 업고 차에 오릅니다. 어머님이 그들을 보시더니 ‘얼른 내복 벗어라’고 하세요. 어머님의 눈빛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었어요. 버스에 있던 어른들이 저를 보며 ‘착한 놈이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 오면 꼭 상을 차려 주셨어요. 반찬이 하나일지라도 꼭 상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스님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는 그야말로 부처님이었다.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슴에 새기고 새겼다.

보각 스님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영암 망월사로 가 출가를 했다. 나중에 사형(師兄)이 된 망월사의 스님들이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추천했다. 그래서 광주 향림사에서 수행자의 길을 시작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계(戒)를 받을 때 직접 가사장삼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나 정성을 들여 만들어 오셨는지 참 정갈했습니다. 출가하고 한참 뒤에 속가 집에 갔더니 유학(儒學)을 공부하셨던 아버님이 유언처럼 한 말씀 하셨습니다. ‘불도(佛道)도 도(道)이고 네가 좋아서 출가했으니 반대는 안 한다. 다만 중도 속인도 아닌 것처럼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버님의 당부가 저에게는 큰 힘이자 숙제가 되었습니다.”

보각 스님은 계(戒)를 받은 후 대흥사 동국선원에서 정진했다. 안거가 끝날 때쯤 대학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스승의 허락을 받고 세속의 책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출가 전부터 경영학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불교학을 공부했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일반대학의 경영학과에 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부전 소임을 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복학하려는데 일이 생겼어요. 제적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결원이 없어 사회복지학과 2학년으로 재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역경’이 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최초의 불교사회복지사”

스님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 사회복지학 공부를 이어나갔다. 사회복지 공부가 경영학만큼 재밌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아르바이트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다시 기도를 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스님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난 뒤 종단에는 큰일이 생겼다. 바로 10·27 법난이 일어난 것이다. 법난을 수습하면서 중앙승가대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됐다. 당시 학인스님들을 가르치던 호진 스님과의 인연으로 스님은 중앙숭가대에서 본격적으로 후학양성을 시작했다.

1985년 3월 수행관장 겸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중앙승가대와 인연을 맺은 스님은 2년 뒤 전임강사가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13면에 계속

삶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내 곁엔 관세음보살이 계시기에!

관세음보살이란 어떤 존재이며, 관음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관세음보살의 모든 것!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시고 모두 벗어나게 할 것이다”
-『법화경』 제25「관세음보살보문품」

『관음경』 전문 번역 수록

관세음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여



당신은 누구시길래
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나요

김호성 지음 | 304쪽 |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나보다 바쁘고 열정적인
전 세계의 성공한 유명인들은
왜 명상을 선택했을까?

넘쳐나는 명상의 세계 속에서
길을 헤매는 당신을 위한
명상계의 미쉐린 가이드!

세계 최고 명상가들의
25가지 명상 레시피
명상맛집



강민지 지음 | 296쪽 | 20,000원

지상백고좌

목포 달성사 주지 보각 스님

“마음 밭 가꾸는 농사꾼이 됩시다”

12면에 이어

마음 밭에 씨앗 뿌려 농사 지어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
“法의 맛은 맛 중의 맛임을 알라”

“대학에서 학인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남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부조하고 보시할 줄 모른다면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복지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한 스님은 1000명이 넘는다. 현재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 스님의 60% 이상이 보각 스님의 제자들이다.

“제자들에게는 사회복지도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언젠가부터 ‘직업 승려’, ‘직업 수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자로서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 사회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중생교화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사회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행보가 결국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사회복지를 따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아마 사회복지사의 모습으로 출현하셨을 것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그 구체적 실천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각 스님은 불교사회복지가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수 보살이 〈대지도론〉에서 자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慈)’를 ‘여락(與樂)’ 즉,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 하고, ‘비(悲)’는 ‘발고(拔苦)’ 즉,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비가 실천되지 않으면 무자비해집니다. 달라이라마 스님도 ‘나의 종교는 친절이다’고 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자비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스님은 ‘불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공이 사회 속에 이뤄지도록 해야 함을 힘줘 말했다.

“불공(佛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각 안에서 목탁만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공이 사회 속에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중생에게 친절을 베풀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사회복지는 곧 불공의 실천입니다.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중생 속에서 실천되고 회향되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불교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뿐이에요. 깨달음을 사회에 나눠야 진짜 불교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님의 연구와 후학양성은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사회적 실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다.

보각 스님은 2016년 4월에 인도 쉬라바스티에 ‘보광학교’를 건립했다. ‘보’는 스님의 법명에서, ‘광’은 어머니의 법명 광대행(光大行)에서 따왔다. 지상 2층짜리 건물 2개 동에는 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12칸과 교무실, 화장실 등이 들어섰다. 학생 1명당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20대와 대형스크린을 갖춘 시청각실도 갖췄다. 학교 건립 기금 전액을 보시했던 스님은 지금도 해마다 6000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보각 스님이 30년 동안 불교계 안팎에 기부한 금액만 30여 억원에 이른다. 법문 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해 어느 해 부처님오신날엔 퀵오토바이를 타고 옮겨 다니며 하루에 7번 법문한 적도 있다. 법문 사례금과 교수 월급, 원고료를 모두 저축해 보시한 것이다.

현장에도 뛰어들었다. 한때 물의를 빚은 소쩍새마을을 인수해 정상화 시켰고 2004년부터는 경기 화성의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인요양시설(묘희원 · 상락원)과 중증장애인 시설(불이원) 등에서 270여 명을 돌보고 있다.

“밥 먹는 시간보다는 더 수행을”

보각 스님은 수행자로서도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매일 일과(日課)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좌우명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함경〉에 보면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수행자라고 봅니다. 말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보각 스님이 석주 스님이 쓴 경전 구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각 스님의 사경 노트.

자제공덕회 이사장을 맡으면서는 〈법화경〉 사경을 시작했다. 그간 쓴 사경집만 벌써 206권에 달한다.

“주옥같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적으며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사경도 같이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동산불교대학에 강의하러 갔더니 ‘나무아미타불’ 10만 8천 번 사경이 졸업 과제라고 합니다. 저는 108만 번을 쓰자고 생각하고 하루에 108번을 4번씩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5만 번 정도 썼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1독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들에게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불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경전만 봐서는 불자가 아닙니다. 박제된 불교, 절에 머무는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능엄경〉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진짜 불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하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심전경작(心田耕作)’을 강조했다.

“부처님께서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탁발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손수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꾸어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야 음식을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야 드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정성껏 기르고 수확한 다음에 먹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입니다. 지혜는 쟁기와 호미이며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항상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력은 내 황소와 같아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감로의 과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 마음수행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 봅시다.”

스님의 법문은 계속됐다. 특유의 입담으로 평소 좋아하는 구절을 곁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스님은 〈법화경〉의 “자비로움을 집으로 삼고 인내를 옷으로 삼으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실인의(慈室忍衣)’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비로 집을 삼고 인내로 옷을 삼으라는 뜻이죠. 자비와 인내만 있으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툴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된 것은 존경하는 석주 큰스님을 만나면서입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진력하셨던 큰스님은 항상 하심(下心)으로 대중들을 대하셨습니다. 손자, 증손자뻘 사람들이 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스스로 낮추는 큰스님의 모습은 항상 아름다웠고,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큰스님께서는 항상 ‘자실인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적이 없고, 인내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스님은 석주 스님이 손수 써준 글씨를 보여주며 경전 구절을 하나 더 소개했다. 〈법구경〉에 나오는 “법(法)의 보시는 보시 중 으뜸이고, 법(法)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법(法)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에 으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는 말씀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진리, 법(法)이 다른 곳에 있다면 출가하지 않고 그리로 갔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法)을 불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부처님 가르침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을 나누는 것이 제일 큰 보시이자 공덕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참맛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만 아는 법, 혼자는 느끼는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알고 실천할 때 불국토(佛國土)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공부하고 정진할 때 모든 욕망은 소멸할 것이며 열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각 스님과의 인터뷰는 유쾌했다. 두 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마치고 스님은 바랑을 챙겼다. 화성으로 간다고 했다. 대중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고 신난다는 보각 스님의 여정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유철주 / 작가

1994~2024 창간 30주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언론발전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10월 15일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간 특집호를 준비하오니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⑰ 경주 남산과 케이블카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삼릉계곡 정상인 바둑 바위에서 금오봉 정상으로 가는 길은 험지다. 아무래도 노령 신자들은 불국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어렵다. 노약자와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이 경주 남산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가 설치됐으면 한다.

경주 남산 케이블카, 이젠 생각해봅시다

불편한 사람들과 장애인도 불국정토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3년 4월 중순이었다. 1박 2일 남산 순례길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하여 경주에 도착 점심 공양을 하였다. 이후 오후 1시쯤 '서남산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삼릉계곡 정상 경치 좋은 바둑 바위에서 쉬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박을 뿌리기 시작했다. 엄지손가락 만 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태어나 처음 맞아보는 큼지막한 우박이었다.

삼릉계곡 정상인 바둑 바위에서 금오봉 정상으로 가면 바로 밑에 비포장 소방도로가 있다. 바둑 바위에서 금오봉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길이다.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금오봉까지만 가면 비포장 소방도로를 만난다. 소방도로는 '동남산탐방지원센터'까지 이어져 있다.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나마 무릎이 안 좋거나 나이가 있으신 신도들은 산이 좀 험해서 동참을 안하게 했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무조건 한 줄로 서서 비포장 소방도로까지 한 30분 정도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말을 하고 걷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걸어 금오봉 밑 비포장 소방도로에 도착하니 우박도 멈추기 시작했다. 안도감에 웃으며 '부처님께서 복덕을 우박으로 내려주셨나 봅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누가 다칠까 봐 걱정되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길도 미끄럽고 옷도 젖고 힘들기도 해서 계획된 용장사지 방향이 아닌 '동남산탐방지원센터' 쪽으로 버스를 부르고 내려왔다. 내려와서 한숨 돌리고 봤더니 경주 다른 지역에는 비 한 방울 우박 하나 내리지 않았다. 남산 정상에서 30분간 우리에게만 우박이 내렸다.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다.

내려오면서 남산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케이블카나 리프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에 케이블카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에서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올해 6월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월정사 수행원장)은 중국 성지순례를 어떻게 다닐까 궁금해서 열하 피서산장에 가는 '쏘댕기기'에 참가했다. '쏘댕기기'는 자현 스님이 만든 순례 모임이다. 국내 순례에는 몇백 명이 참가하고, 외국 순례에도 100여명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싶었다. 열하의 호텔에서 하루 묵고 아침 조식을 하는데 멋진 쌍탑이 보였다. 우리나라 마이산 같이 솟아난 두 개의 바위산 정상에 탑이 하나씩 있어서 쌍탑이라고 한다. 산 위에 두 바위산이 솟아 있고, 그 위에 벽돌로 전탑을 만들어 세운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 안동 지역에 전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오를 길 없는 깎아지른 사방의 절벽 위에 어떻게 탑을 세웠을까 감탄사만 나왔다.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 8세기 중엽에 조성됐다.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숨
남산 순례, 노령 신도에겐 버거워
케이블카, 계획된 곳에 한정 설치
교통약자 문화유산 향유 증진 기대

쌍탑에 가려면 리프트를 탄다고 한다. 나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리프트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20대 중반의 기억 때문이다. 대둔산 케이블카를 처음 탔을 때 서서 정신을 잃었었다. 얼굴이 하얀 나를 보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놀라 했고, 도착 후에 정신이 들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높은 곳은 가지 말라고 했다.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다. 특히나 리프트는 탈 일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리프트가 스키장에 거의 다 있는데,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까지 리프트를 타본 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쌍탑을 오르는데 리프트를 탄다는 것이다.

케이블카는 눈을 감고 어찌 타보겠는데 리프트라니. 100여명의 순례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리프트를 못 타겠다는 말은 안 나왔다. '그래. 자존심이 있지. 눈감고 타보자.' 쌍탑은 10분 정도 리프트를 타고 내린다. 눈을 감고서 어찌어찌 리프트를 탔다. 그런데 아하 이런. 다음 날 엄지손가락을 세워놓은 것 같은 '경추봉'이라는 봉우리를 리프트를 20분 넘게 타고 오른다는 거. 왕복 40분이다. '그래 이번 기회에 고소공포증을 이겨내자.' 명상에 든 것처럼 마음을 다잡고 눈을 뜨고 주위를 보면서 오르고 내렸다. 떨림은 좀 있었다. 리프트를 타고 생전 처음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며 펼쳐진 세상을 보았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못 보다가 이제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쑥스러운 나만의 도전의 시간이었다.

열하 순례 첫날에도 만리장성을 갔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왔었다. 중국은 높은 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만들어서 접근을 편리하게 해놓은 것이다. '경추봉'을 오르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있는 산에도 도로나 등산로보다 리프트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 훼손이 덜한 것 아닌가 하는.

남산 순례를 신도들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다. 남산 불교 문화유산 참배의 대표적 순례길인 서남산 삼릉에서 시작하여 용장사지로 내려오는 코스는 넉넉잡고 6시간 내외가 걸린다. 동남산의 칠불암 코스도 그렇고 남산의 순례 코스는 경사가 급한 지역들이 많다. 그렇기에 무릎이 아프거나 연세가 든 분들은 힘에 겨운 것이 사실이다. 열암곡 누워계신 부처님이 계신 마애불상을 참배하는 코스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마찬가지다. 어느 코스건 무릎이 아프면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는 것이 남산 순례길의 변함없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불교 문화유산 탐방과 참배의 순례길에는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케이블카나 리프트를 남산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더해졌다. 환경단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훼손이라서 반대한다. 그런데 케이블카나 리프트는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환경보존에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마다 무분별하게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환경 훼손을 불러올 것은 뻔한 결론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치가 아닌 계획 하에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면 노령인구가 많아진 현실에서 필요한 것 아닐까.

남산 금오봉 정상 어딘가에 케이블카나 리프트로 설치된다면 몸이 불편하여 남산 순례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순례할 수 있다. 남산 금오봉 정상길은 급경사가 없는 완만한 길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금오봉에서 삼릉계곡 쪽 바둑 바위를 가다 보면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을 멀리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금오봉에서 금오정을 지나 부흥사 가기 전에 남산을 기단으로 하는 멋진 풍경의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늠비봉 오층석탑)도 참배가 가능하다. 금오봉에서 서쪽 약수곡 밑에 있는 남산에서 제일 큰 '약수계곡 마애입불상'도 있다. 서남산 순례 코스인 용장사지에는 너무나 멋진 '용장사곡 삼층석탑'과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정상까지만 오를 수 있다면 다 순례하고 참배할 수 있는 것이다.

서남산 순례를 마무리하는 용장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역사가 깊은 사찰이다. 조선시대에는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 '금오신화'를 쓴 사찰이기도 하다. '금오신화'의 '금오'는 남산 금오봉 용장사에서 쓴 '금오신화'라는 의미다. 용장사는 일제강점기 용장(茸長)의 이름이 쓰여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용장사의 터라는 것이 확인된 법상종 사찰이다. 법상종은 유식종이라고도 하며 미륵불의 정토 신앙을 믿는 종파다. 용장사는 출토된 유물로 보아 8세기 중엽인 700년 중반에 대현(大賢)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법상종의 개조인 대현이 용장사에서 '미륵석조장육상'의 둘레를 돌면서 기도를 하면 불상이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고 한다. '미륵석조장육상'은 지금의 불두가 사라진 둥근 연화문 좌대 위의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대현의 이야기는 이어서 의미심장한 내용이 대현의 법상종과 법해의 화엄종 대결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754년경 신라 경덕왕(742~765)이 가뭄이 들자 용장사의 대현을 궁궐에 초대하여 기도하게 하였다. 이때 대현은 마른 궁궐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신통을 보인다. 다음 해에 경덕왕은 화엄종의 고승 법해를 황룡사에 초청하여 〈화엄경〉을 강론하게 하였다. 왕은 이 자리에서 대현의 우물에서 물이 솟은 이야기를 하면서 법해의 법력은 어떠한지 묻는다. 그러자 법해는 대현의 일은 별거 아니라면서 동해를 움직여 감은사(感恩寺)의 불전 앞까지 바닷물로 잠기게 한다. 이러한 일을 본 경덕왕은 법해를 공경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경덕왕대인 8세기 중반 화엄종이 법상종보다 강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설화로 보인다. 또한 한국 불교 역사에서 8세기 중반이 되면 전국적으로 화엄종 사찰이 창건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668년 백제와 고구려 멸망과 함께 이 지역의 사찰은 폐허가 된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8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신라 땅 이외의 백제와 고구려 지역에 화엄종을 중심으로 사찰이 창건되는 것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 해당 원고 중 케이블카 설치 관련 내용에 대해 편집자와 필자가 장시간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필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 수정 없이 교열 원고를 게재합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7호 | 15 | 전면광고

세상의 모든 향기 중에 가장 훌륭한 향기가
세 가지 있으니, 첫째가 지계의 향기요,
둘째가 배움의 향기요,
셋째가 보시의 향기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부산시 • 대지 110평
- 법당 25평 • 요사 60. 주차가
- 매가 10억
- 위치 서울 • 대지 200평
- 법당 60평 외 • 요사 60평 외
- 매가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 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깨끗한 목조법당
- 매매 7억5천, 전세 4억
- 부동산 사절

010-8078-21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 전세

- 위치 : 부산
- 사찰대지 25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연수익금 7000만원, 주차시설 10대
- 전세금 2억원

010-4561-6368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동서울에서 약 106km 1시간 30분, 동홍천에서 17km 25분
- 총토지면적 546평
-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토굴이나 개인 선방용 추천
- 가액 1억8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 2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전망 좋고 신도 많음.
- 현재 운영 중,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대출 5천 안고 2억 8500만원

010-8643-5235

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까치산 시장과 지하철 입구 인접
- 마당있는 단독주택 방 3개(거실 법당)
- 보증금 : 1000만원/월세 80만원

스님 이민 관계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법당 법구 일체, 냉장고·세탁기 등 모두 보시하고 갑니다

010-5399-1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야산151번지 (시내 25분, 마을 5분 거리, 자동차길 있음)
- 스님 토굴 수행처로 좋음
- 귀촌, 개척 수익성 토지 3000평 : 7500만원(5000평 있음)
- 농작물, 과일나무, 표고버섯 양봉, 더덕, 장뇌삼 재배가능
- 수목장 묘터 활용가능

산내 암자 010-3521-54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2필지)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4개) 주차장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 가능)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022-2187
010-5333-89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4억6천

010-5204-8176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 안내

1497호 | 16 | 전면광고

큰 바다는 널리
온갖 물을 받아들이지만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대승장엄경론》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공양주 하실 분 구함

백운사

010-6513-4771
010-8640-0108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공덕심 보살
나이 78세 (정해생)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010-3152-2732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십성 신통수련 개시♣

선불합종 화랑도 신선도 수련

※당신을 본 선불합종 금륜회에 상수 지도자로 모십겠습니다.
※금륜회 수련은 무료이며 후원에 의 운영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세상 변화 원리를 알고 살자!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금륜회
■후원 : 대한불교 삼성 고불대학
■일시 : 단기4357 불기2568(24)
■장소 : 9월 4일 수련모임 오후3시 (인왕산 수성계곡 정자)
■내용 : 화랑도 십성 신통법 수련
■교통 :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자하문 방향〉 마을버스 9번〉종점 하차〉 통화 요망!

후원 주실 분 적극 참여 바랍니다.

문의 010-7387-2833 백악산인 금륜화엄스님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4층



상담 : 010-2090-40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공 고

상기 스님은 종헌 종법과 종령을 위반하고 해종행위를 하여 종헌 제17장 제105조 및 종법 제4장 제15조에 의거 체탈도첩하여 제적함.

• 성 명 : 박영일
• 법 명 : 지영 스님
• 승 번 : 2-0149
• 사찰명 : 성주암 (부산교구)

불기 2568(2024)년 8월 21일

(사)대한불교총화종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 454-86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국가대표는 '콩쥐'가 아니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㊻ 안세영과 영화〈국가대표〉



영화 〈국가대표〉 한 장면

어릴 때는 절에 갈 때는 좀 무서웠다. 천왕문을 지나야했기 때문이다. 악기를 들고 있거나 창, 칼을 들고 눈 부리부리하게 뜬 천왕들 아래 발에 깔려 벌을 받고 있는 마귀들과 죄인들처럼 나도 벌을 받게 될까봐 조마조마했기 때문이다.

아이 수준에서도 뭐가 잘못인지는 알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안다. 없는 걸 탐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따금 거짓말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 그런 잘못 하나하나가 다 어른에게 밝혀져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건 아니고, 혼자 슬쩍 저지르고 감춰둔 채로 지나가게 되기도 했다. 그게 사천왕들 부릅뜬 눈에 걸려 벌을 받게 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저절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곤 했다.

많은 옛이야기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곤 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가령 서양 전래동화 '신데렐라'나 우리 전래동화 '콩쥐팥쥐전'에서 신데렐라와 콩쥐를 괴롭혔던 의붓어미와 자매들이 받은 벌은 사천왕들 발에 깔린 마귀와 악인들이 받는 벌 못지않게 잔혹하다.

신데렐라에게 자기네 청소·빨래를 다 시키며 불기운 하나 없는 다락방에서 떨며 지내게 만든 의붓 언니들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할 때 구경하러 나섰다가 새에게 눈을 쪼여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죽게 된다. 콩쥐에게 나무호미로 자갈밭을 매라고 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며 온갖 허드렛일 다 시키던 팥쥐 어멈은 콩쥐가 잘난 벼슬아치에게 사랑받아 결혼하게 되자 죽여버린다. 그러고는 친딸 팥쥐를 콩쥐 행세 시켜 대신 감사에게 보냈다가 들켜 팥쥐 살점으로 담은 젓갈을 먹고 놀라 죽는다.

이렇듯 아주 옛날부터 동양이고 서양이고 청소년에게 허드렛일 시키고 괴롭히면 안 된다고, 의붓자식이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부리면 벌을 크게 받으리라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가르쳐왔다. 이것이 관습이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표팀 막내로서 선배들 청소 빨래에 라켓 줄갈이까지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왔고, 그걸 바로 잡아달라고 청했다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되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신데렐라나 콩쥐처럼 그런 어려움을 밝혀줄 존재조차 하나 없이 7년을 버텨 금메달을 따고서야 이런 일을 바로 잡아줄 어른이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국가대표가 된 이래 운동과 경기 말고 다른 상황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노라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런데도 협회 어른들은 선배들 허드렛일 시켜 먹는 것이 관습이라고 핑계를 댄다. 그리고 비인기종목인 배드민턴에서 개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국가대표가 된 이상 무조건 협회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으름장을 놓아왔다는 것이다.

> **지키고 싶은 사회적 약자 청년들의 도전기 그려내**
> **국가 승인 없이 운동할 수 없는 건 민주국가 아냐**
> **'어리다'는 이유로 강짜 놓는 것은 관습 아닌 '악습'**

비인기종목인 스키점프를 다룬 〈국가대표〉(2009년, 감독 김용화)라는 영화가 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소년이 청년이 되어 돌아와 낳아준 엄마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돌아온 청년의 미국 이름은 밥, 한국 이름은 차헌태(하정우). 밥은 엄마를 찾기 위해 가족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만, 정작 밥을 찾는 이는 엄마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지도 못한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방코치(성동일)다.

방코치는 낯선 종목을 지도할 코치로서도, 국가대표팀이라는 이름값 큰 조직을 책임지고 운영할 행정가로서도, 심지어 자기 가족을 책임질 아버지로서도 제대로 꾸려나갈 주변이 안되어 보이는 인물이지만 밥에게는 그나마 엄마를 찾을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밥 말고도 방코치가 국가대표팀에 끌어모으는 선수들은, 아니 방코치의 꼬임에 넘어가는 선수들은 하나같이 신세처량한 젊은이들이다.

고교 시절 나름 앞길 창창한 스키 선수였으나 약물 복용으로 메달을 박탈당하고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껄렁대며 지내는 흥철(김동욱), 고깃집 아들로 숯불붙이고 음식 나르는 사이 종업원 조선족 아가씨와 정분이 난 재복(최재환), 생활력없는 할머니와 모자란 동생을 책임지느라 고단한 삶에 찌든 칠구(김지석), 해맑게 웃는 것 말고는 제 앞가림하기에 한참 모자라는 칠구 동생 봉구(이재응)가 방코치의 희망고문에 넘어가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을 꾸린다.

올림픽 메달만 따면 나라에서 아파트를 내어줄 터이니 엄마를 찾아 함께 살 수 있고, 군대도 면제가 되어 임신한 애인이나 생활력 없는 할머니를 두고 떠나지 않아도 될 터이며, 방코치의 딸처럼 어여쁜 아가씨가 애인도 되어줄 거란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스키점프라는 스포츠에 여건조차 변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던진다.

비인기 종목, 그것도 아직까지는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종목, 그저 동계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명목상 필요한 종목인 스키점프는 국가대표팀 각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족 찾기, 지키기, 만들기 프로젝트다.

훈련시설도 재정지원도 변변치 않은 국가대표팀이지만 목표가 절실한 만큼 노력도 대단하다. 그래서 흘린 땀에 행운이 보태져 바라던 올림픽 출전자격을 따냈건만 막상 국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국가가 원했던 것은 선수들 각자의 간절한 꿈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동계올림픽 유치였기에 그 대의가 무산되는 순간 올림픽 출전자격을 따낸 국가대표팀이고 뭐고 간에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국가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의 도전기를 통해 스포츠를 소재로 하는 많은 영화가 국가라는 상징과 만났을 때 쥐어짜내기 쉬운 애국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가 국가라는 실체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를 보여준다. 함께 살아야 마땅한 가족이 흩어져 살도록 만드는 나라, 하고자 하는 운동을 제 아무리 열심히 해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더라도 '국가'의 승인 없이는 운동을 계속하기는커녕 삶을 꾸려나가는 것조차 어렵도록 하는 나라는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아니다.

아찔한 도약대에 온몸을 던지기까지의 고난과 두려움을 겪어내고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국가대표〉는 국가가 승인했을 때야 인정받는 것이 국가대표가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들 각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 애쓸 때 당당한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유의 권리를 일깨운다.

영화 〈국가대표〉 이후 동계올림픽도 치렀고, 이제 어지간한 운동에서 국가는 지원하고 협회는 보살피며 운동하는 청년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줄 알았다.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열심히 노력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스포츠인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배드민턴계에서는 협회가 팥쥐 어멈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안세영 선수가 중3 이후 7년, 지금 22살이면 살아온 세월의 1/3을 남의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왔다는 것이다. 어리면 외려 살펴주고 일도 대신 맡아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다. 어리다고 강짜를 부리는 것은 동서고금 '관습'이 아니라 '악습'이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 모신 법당에 가기 전에 사천왕상을 지나며 악업을 짓지 말도록 한 깊은 뜻을 새기며, 누구든 팥쥐 어멈이나 신데렐라 의붓 언니들처럼 벌 받기 전에 그런 악습이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㉝

1. 불교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행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② 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다.
③ 수행은 신통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④ 수행은 잘못된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해설 :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불교는 구원을 타자의 은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몸과 마음을 닦기 위해 잘못된 몸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통력은 수행의 목표가 될 수 없는데, 신통을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2. '아시타 선인'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① 태자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② 오랜 세월 수행해 왔으나 자신은 깨닫지 못해서
③ 어머니인 마야왕비가 곧 돌아가시게 됨을 예감하여서
④ 태자가 출가한 후 카필라 국이 멸망할 것을 예감하여서
⑤ 부처님의 성도 후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워서

해설 : 아시타 선인은 보살이 태어날 때쯤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인(수행자)였다. 그는 보살의 탄생과 태자일 적은 볼 수 있으나 업에 의하여 정해진 수명이 있었음으로 태자가 장성하여 부처님을 이루고 가르침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음으로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3. 다음은 싯다르타 태자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아시타 선인의 예언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왕자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상호를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은 훗날 성장하셔서 전 인도를 통일하여 덕으로써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인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면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이 될 것입니다.

① ㉠ - 부처님 ㉡ - 보살님
② ㉠ - 부처님 ㉡ - 전륜성왕
③ ㉠ - 전륜성왕 ㉡ - 부처님
④ ㉠ - 보살님 ㉡ - 부처님
⑤ ㉠ - 대왕 ㉡ - 보살님

해설 :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상호를 32상 80종호하고 한다. 이 상호를 가진 사람의 운명은 두 가지인데 전 인도를 통일하여 덕으로써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인 전륜성왕,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다. 순서대로 전륜성왕-부처님이다.

4.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부모는 정반왕과 마야왕비이다.
②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성인이란 뜻이다.
③ 싯다르타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④ 어린 시절 싯다르타 태자를 양육시킨 사람은 이모였다.
⑤ 싯다르타 태자는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를 사랑하였으나 끝내 결혼은 하지 않았다

해설 : 부처님의 부모님은 정반왕과 마야왕비로 이들은 석가족의 왕족이었다. 싯다르타라는 이름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마야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시고 일주일만에 돌아가셔 그 동생인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을 기르셨다. 부처님께선 출가하기 이전 야소라다 공주와 결혼하였다.

5. 싯다르타 태자의 청소년기 생활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싯다르타 태자는 사문유관 후 출가를 결심하였다.
② 다양한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왕자로서의 자질을 닦았다.
③ 싯다르타 태자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후세계를 추구했다.
④ 어린 시절 농경제에 참석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⑤ 사문유관을 통해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해설 : 부처님은 출가 전 카필라국의 싯다르타 태자로서 다양한 학문과 무예, 왕자로서의 자질을 닦으시며, 농경제에 참석하여 힘든 농부와 짐승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고 결정적으로 사문유관 후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를 결심하셨다. 부처님은 늙고 죽으며 사후세계와 이승이 반복되는 윤회 자체를 끊을 결심을 하시고 출가하셨다.

정답 : ①, ③, ②, ⑤, ③, ③, ④, ⑤, ⑤,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W99,000~~ 60%할인
W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17 니까야 ⑤



▶한줄 요약
오계를 수지하는 것보다 큰 공덕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애심을 품는 일이다. 이보다 큰 공덕은 '참으로 덧없구나'라고 진지하고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수없이 보시하며 공덕을 지었다면 이제 덧없음을 자각하면서 당신의 마음공부에 집중하라는 부처님의 안내이다.

마음공부, 부처님 설한 최상의 공덕

자기 장점을 찾아보자

불자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리불, 목건련, 가섭, 아난다, 수보리…. 이런 이름 앞에는 늘 따라붙는 말이 있으니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련… 이런 식이지요. 이런 수식어는 이들의 스승인 부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하여 딱 열 분의 이름만 알고 있는데 해당 경전을 보면 그밖에 또 다른 스님들 이름을 거론하며 '무엇이 제일이다'라고 부처님이 찬탄합니다. 무려 40명이 훌쩍 넘는 선지식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구니스님들도 똑같이 거론되고 있고, 여러분과 나처럼 남녀 재가신자들에게도 부처님은 '○○는 □□이 제일이다'라며 이름을 거론하면서 드러내놓고 찬탄합니다.

'드러내놓고'라는 말이 좀 거북하신가요? 하지만 칭찬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과장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쭉 살펴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신 결과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있는 장점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으뜸간다고 부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가요? 바로 그 점을 잘 계발하면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 제일 많이 한 아저씨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부처님에게서 '보시제일'이라고 찬탄 받은 재가불자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기로 으뜸가는 사람, 바로 급고독장자입니다. 그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시고 그리 오래지 않아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기원정사도 그의 시주로 이루어졌지요. 경전에서는 쑤닷따 아나타삔디까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급고독이란 말은 고독(孤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給)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란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孤)와 나이 들었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노인(獨)을 말합니다.

이토록 아낌없이 베풀다보니 어느 사이 급고독장자 자신도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를 멈출 수는 없었기에 그는 멀건 죽을 쑤어서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절을 찾아서 부처님을 뵙고 특히나 존경하는 사리불 스님과 법의 우정을 쌓아간 '아저씨'입니다.

어느 날,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뵈러 왔습니다. 부처님은 짐짓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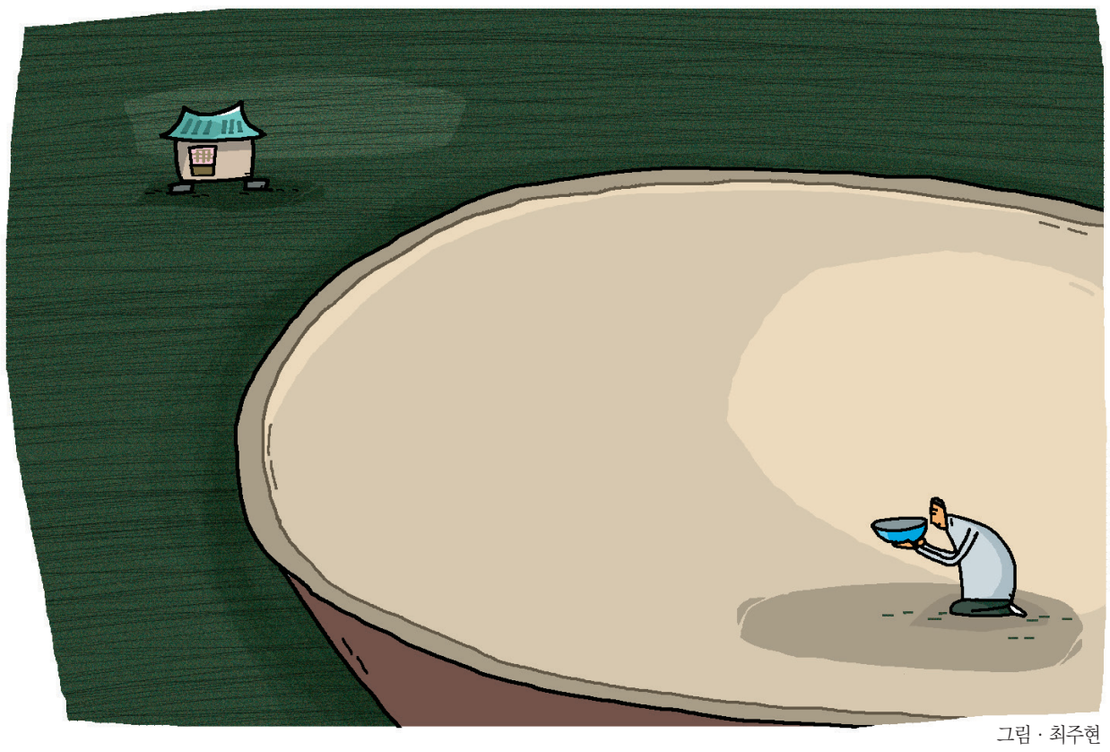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대는 지금도 열심히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잖아도 가세가 기울어서 예전처럼 보시하지 못해 안타까운데 하필 부처님은 정곡을 콕 찔러서 물었습니다. 급고독장자는 송구한 듯 대답합니다.

"보시를 하기는 합니다만, 시큼한 죽과 함께 뉘가 섞인 싸라기 쌀로 만든 거친 음식입니다."

급고독장자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베푸는 것이 거칠고 변변찮고 소량이어도 혹은 그 반대의 것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베푸냐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을 존중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면 그 과보는 매우 훌륭하게 그대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급고독장자는 조금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부처님 말씀처럼 정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뜻밖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보시 공덕의 순서

어느 생에선가 부처님은 웰라마라는 이름의 바라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시할 때에도 눈이 휘둥그레 해질 정도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 하려 해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보시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강물이 흘러넘치듯 웰라마는 보시했습니다.

오계 수지 · 자비보다 큰 공덕
'덧없구나'를 깊이 인식하는 것
많은 공덕 지었다면 무상 알고
마음공부하라는 부처님의 당부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물 보시보다 공덕이 더 큰 행위가 있으니 그건 바로 올곧게 잘 수행하는 구도자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라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의 순서로 구도자를 언급하지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올곧게 잘 수행하는 구도자'라고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도자 한 사람보다는 올곧게 잘 수행하는 구도자 백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 더 공덕이 큰 일임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슬그머니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베풀어도 스님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는 말이잖아. 사회에 기부하지 말고 절에다 다 가지고 오란 말이야, 뭐야?'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 경전을 읽을 때 어떤 수강생들 얼굴에는 불만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지요. '올곧게 잘 수행하는 구도자'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날 하루 수행하기에 적당한 한 끼의 밥만이 구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아무리 태산보다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베푼다고 하더라도 법답게 수행하는 구도자에게 마음을 담아 음식 한 끼를 공양 올리는 일이 더 큰 공덕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의 보시로 채울 수 없는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 보시보다 중요한 일

그런데 올곧게 잘 수행하는 구도자 백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일보다 더 공덕이 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보다 부처님을 우두머리로 하는 승가에 공양 올리는 일이 공덕이 더 크고, 그보다 더 공덕이 큰 것은 승가를 위하여 절을 짓는 일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평소 재가불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베풀기(보시)와 오계 지키기(지계)입니다. 수행은 좀 어렵고 선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재가자는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실천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사항들은 사실 급고독장자가 평소에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치자면 급고독장자는 어마어마하게 공덕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불자에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글쎄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보다, 절을 하나 짓는 일보다 공덕이 더 큰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일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그 어떤 욕망이나 계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삼보를 내가 기댈 유일한 언덕이라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귀의하는 일보다 더 공덕이 큰 일은 다섯 가지 계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챙기는 일, 이것이 오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야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가족과 이웃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공덕이 큰일을 찾아서

그런데 다섯 가지 계를 지키는 일보다 공덕이 더 큰 것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건 바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애심을 품는 일입니다. 나도 살기 벅찬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 건가요? 이해합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지요. 부처님은 이런 자애심을 밤낮으로 품고 살라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한번 품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짧게? 소젖을 한번 짜는 동안만큼이라고 합니다. 또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내 코를 스쳐 지나는 동안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소젖의 비유보다 꽃향기 비유가 더 와닿습니다. 자애심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그 향기가 살짝 나를 스쳐 지나는 짧은 동안만이라도 좋으니 자애심을 품는 것, 이것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보다 절 하나 짓는 일보다 공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공덕이 더 큰 일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참으로 덧없구나'라고 진지하고 깊이 인식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일, 손가락을 딱 튕기는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뼈저리게 그걸 느껴보는 일이 절 하나 짓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앙굿따라 니까야〉 제9권)

그동안 수없이 보시하며 공덕을 지었다면 이제 덧없음을 자각하면서 당신의 마음공부에 집중하라는 부처님의 안내입니다. 재가불자는 복덕, 공덕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이왕 할 바에는 공덕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은 그게 바로 덧없음을 뼈저리게 인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부처님 법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시주님 급고독장자에게 들려준 부처님의 그날 이 말씀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모두이 몸뚱이 있을 때 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믿고 맡김으로써 세 번 죽음이…

질문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것으로 세 번 죽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허허허. 주인공을 일심으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사람은 다리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즉 무심과 유심이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와 동시에 돌아가죠? 어디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눈과 귀가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것을 악과 선도 거기 놔라. 악한 거는 '선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놓고,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든 거를 한군데다가 놓는다. 자기가 공해서 본래 없는 것이다. 따로 내가 없다 하는 소립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따로 내가 없는데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따로 독불장군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가 따로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따로 없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공생이며 또는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그냥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끔 하려면 겉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써, '한마음 속에서 모든 게 들고 나는 그 무쌍한 만법이 그대로 더불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말입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 속으로 확철히 알려면은 거기다가 또 놓고 돌아가야 하니까 또 두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세 번째도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인연에 따라서 이 손수건을 쥐었으면 손수건은 들고만 있는 게 손수건이 아니라 땀을 씻는 겁니다, 어디를 씻든지. 그러면 나와 수건과 인연이 마주쳤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발전의 작용입니다, 발전의 작용. 그렇기 때문에 나툰다고 하는 겁니다, 나툰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땀이 나면 손수건을 들고, 말소리를 내려면 이 마이크를 들고, 모든 일체 만물이, 만가지가 다 나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또 놓고 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구경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거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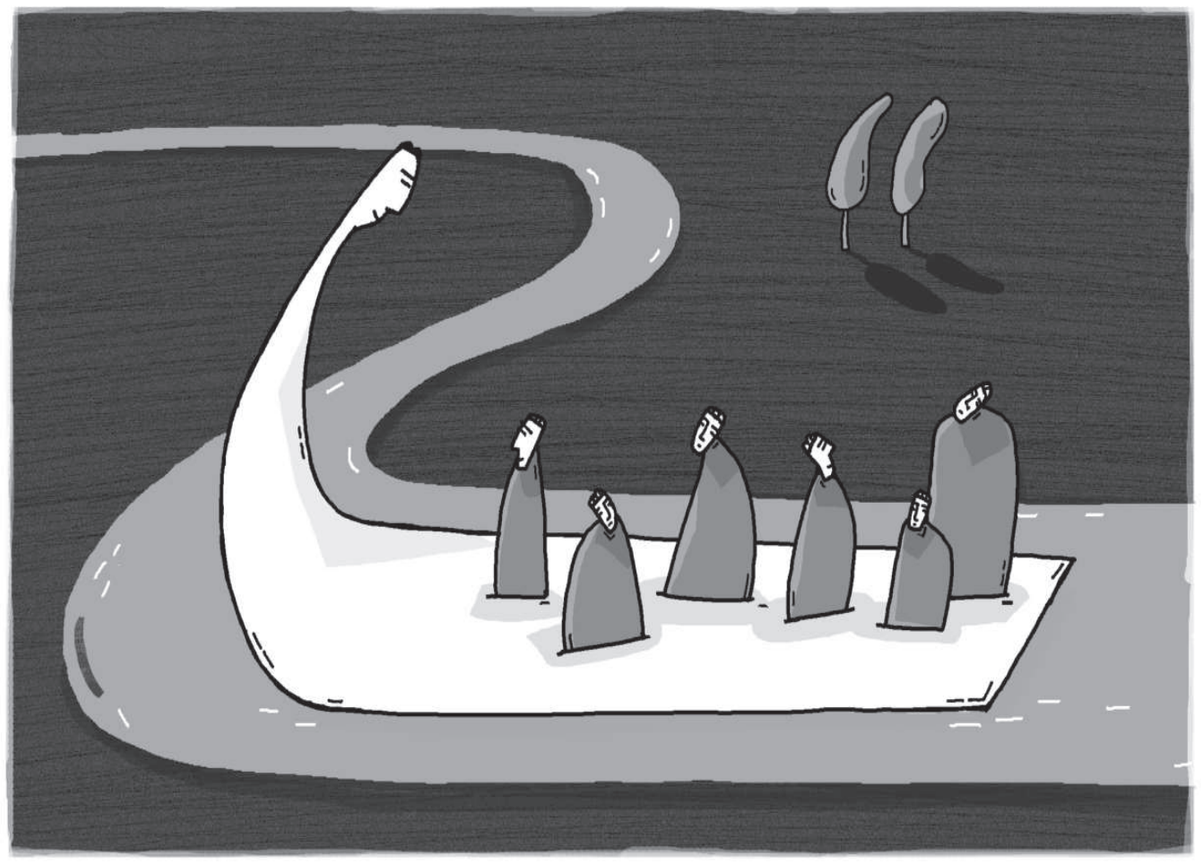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올라오는 의식들 다잡고 가려면

질문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감정들, 의식들을 제대로 다잡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따져 본다면 한 가정뿐이 아니라 한 몸에서도, 지금 수십억의 중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다 다스려야, 이게 화해서 나투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안팎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갈 텐데 내 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온갖 악한 거는 다 몰아오고, 액운은 다 몰아오고 좋은 거는 적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에 바로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다 따라 줍니다.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기준을 둬서 다 따라 줍니다.

이거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숙명통' 하면 컴퓨터와 같다고. 과거에 모든 업을 지은 것이 바로 현실에, 인연에 따라서 모두 내 몸속에 거듭거듭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발로가 돼서 그냥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맡겨 놓으면, 그 숙명통 컴퓨터에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던 게 다시 입력을 하니까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다 타 버린다고 하면 모두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됐던 그 자체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팥죽 끓는 것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더랍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이 속이 팥죽 솥이라면, 그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지 딴 데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팥죽 방울이 자꾸 움죽거리니까 바로 법신이거든요.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걸 다스려서 거기다 놓고 돌아가신다면, 살림을 하신다면 모든 입력이 됐던 게 다 무너지면서, 오간지옥도 무너지면서, 그 악업 선업, 업식이 다 무너지면서, 이게 놓는 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된 대로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되놓고 되놓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십시오.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길을 딛고 일어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의 말도 있듯이.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그 입력됐던 데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뜻이 있고 이렇듯이, 모든 게 그렇게 부딪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한 몸에서 그렇게 돌아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버리세요

☞ 19면에서 계속

가는 거죠. 소리가 저 바깥에서 나면은, 싸움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눈으로 보는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니 동시지 어디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이름은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모두가,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한군데다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으면 놓는 대로 통신이 되고 놓는 대로 작용이 되고 놓는 대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맡겨 놓고 '그놈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놈이 없으면 못 할 거고 그놈이…. 모든 거는 영원한 친구 그놈이, 거기서만이….'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본래자성불이라고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도 집에서 별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라는 이름, 형님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어머니, 할머니 뭐 할 거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 할 때, 할머니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아들 노릇 하고, "여보!" 그러면 "응, 왜 그래?" 그러고 남편 노릇 하고, "아버지!" 그러면 "얘, 언제 들어왔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도 잘하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멋진, 자성의 이 멋진 묘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두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사대가 통신이 되면 온통 들고 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수십만 개로다가 입자가 돼서 들고 나면서 일들을 하거든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과 유심이 다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작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쌍방이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 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은 하나지마는 갖다가 잇는 데는 줄과 줄을 한데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작용하는 도리를 하나로 말하지만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없다고 한 것입니다. 평등공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이가 있을 때 이 공부를 모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스님네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절에 입산을 해서 있다 할지라도 속가에서 살림하는 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마찬가지죠. 입산을 해 가지고도, 살림을 하는 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내 살림, 내 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게 이 부처님 법에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같이 나누어 먹고,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입고, 서로서로 남의 원망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율도 지킬 수 있고 질서도 지킬 수 있고, 무조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 잘못됐더라도 그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놔 버리세요.
>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보물 거기다 그냥 놔 버리세요.

몇 년 전까지 화목했는데…

질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이 아주 화목했는데 살림이 곤궁해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삐걱거리더니 지금은 아주 몸만 한 집안에 있지 마음은 모두 제각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화목한 집안으로 되살리고 싶은데 힘 좀 보태 주십시오.

답변 왜 집안에서도 화목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아이구,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 말이 좋게 나가질 않고 얼굴부터 찌푸려지고 이러죠?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가 얼마나 멀다고 그렇게들 야단들을 하고 싸우고 옹옹거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나로 인해서 부인이 있고, 부인은 나로 인해서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우릴 화목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다.' 하고 놓고 "여보! 이제 들어왔소." 하고 밝게 대하고, 만약 집에 있는 부인이 상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여보! 어디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늑하냐 이겁니다. 신경질을 내다가도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신경질을 내는 걸 보면 벌써 "으이그!" 이렇게 시작하면 "아유, 괜히 신경질이야."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자식들에게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먹는 대로 그 마음의 초점이 이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좋게 말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맡겨 놓으면 금방 돌아서서 마음이 착해지면서 "여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어." 하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 말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은 여기 안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로 남을 헐뜯을 일이 있더라도, 설사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더라도 부부니까, 부부 아니더라도 그래요. "여보, 어쩌다가 그랬소? 여보! 그래도 너무 상심 말아요. 아이, 죽으면 죽지, 뭐.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해 나가고 주인공에 다 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냥 잘 이끌어지고 잘 돼요.

자식도 그래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든, 나가서 노름을 하든,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내버려 두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는 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잘못 말하거나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상전이에요. 부처님을 잘 모시려면 효도하고, 충성하고, 자식을 잘 이끌고,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이끌고, 형제지간에 잘 이끌고 이렇게 지혜가 넓어야 이것이 바로 불법을 잘 이끌어 가는 거기 때문에 불법을 빨리 승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지, 만약에 내가 이론적으로만 여러분한테 말한다면 여러분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말을 하면서도 말이 그대로 법이 되는 법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어떤 스님네들이 셋이 가다가 지네가 이만한 게 가더라는 거예요. 지네 발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네더러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구! 저 지네 좀 봐.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걸리지 않고 가는 것 좀 봐." 하니까 지네가 딱 서 가지곤 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서 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고만 세 스님네들이 깨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도 말을 하면 거기에 걸려 가지고 아주 옴폐부득을 못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걸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마십시오. 잘못됐더라도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놔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보물 거기다 그냥 놔 버려요.

내가 만약에 오신통이라는,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 보물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다 맡기지 않고선, 그 보물이 알아서 할 거를 내가 가지고 할 양으로 모두 간섭을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고 탐지기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총무 스님한테 소임을 다 맡겼는데 총무 스님 일할 것까지 내가 나서서 그냥 다 해 보세요. 이 절이 그냥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니 여러분은 거기서 다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깐, 거기다가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선입견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질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그 선입견을 바꾸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정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시 좀 더 이렇게 해서 내면 좋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를 "이 그릇이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되죠.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으세요. 다시 그게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어요.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 텐데, 생산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이 생산이 되듯이, 그 사람도 또 달리 보이는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죠.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 이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를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래 다르고 몇 달 후에 다르고 일 년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거는 만날 그 그릇에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게 습이거든.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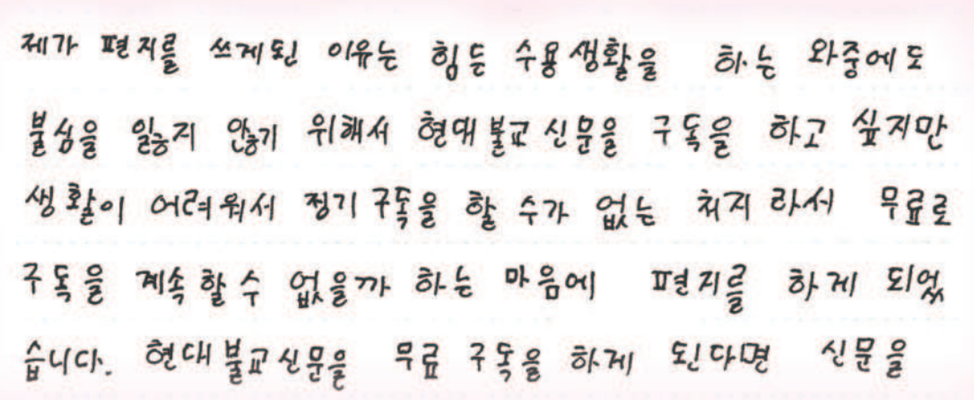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㉒ 밝은 생각으로 자살 이겨낸 삽빠다사 비구

공동체 따뜻한 관심, 자살 극복

'매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자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그들은 자살을 하는걸까? 그들은 자살이 목표가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끝나지 않을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자살 사고를 가진 내담자를 만날 때 사실 상담자도 두렵다. 자살 사고를 가진 내담자를 만난 후 "그가 제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며 걱정하던 동료 상담가의 얼굴이 떠오른다.

'제발 마지막 끈을 제발 놓지 않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내담자가 자살을 하게 되면 상담자는 고통 속에 함께 허우적거린다.

'자살'은 무거운 주제다.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택했다.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희망의 끈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자살 사고가 떠오르면 급히 지우고 다시 삶에 집중하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자살 충동이 고개를 내민다. 그렇게 견디기를 반복하다 더 이상 버틸 수조차 없을 때 결심하게 된다. 절망감과 자기혐오, 무력감이 자살로 내몰고 부추기게 되면 안타까운 결정을 한다. 자살에 대한 속설 가운데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죽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인지 상태는 '양가감정'이다. 그들은 살고 싶어 하면서도 죽고 싶어 한다. 죽음과 삶 속에서 버둥거리는 상황이다. 죽음과 삶을 선택하는 반환점에서 매번 삶을 선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의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고를 터널시야(Tunnel Vision)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며 고통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그들은 자살 외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끝없는 고통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마샤 리네한(Marsha M. Linehan)의 변증법적 행동요법(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py)과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등을 장기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인지도식을 재조정해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핵심은 '주변의 관심과 이해를 담은 따뜻한 대화'이다. 흔한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따뜻한 관심은 고통의 터널에서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이자 빛이 된다. 25년 간 자살을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 로리 오코너(Rory O'Connor)도 '관심갖기' '들어주기' '대화하기' '질문하기'를 주요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며 "누군가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를 계기로 힘을 얻어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자살 사고, 끝없는 고통의 터널로 느껴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대화가 빛으로

〈법구경〉에는 삭도로 자살을 시도한 삽빠다사 비구가 나온다. 그는 습관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성격 때문에 25년간 수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경전 내용으로 추측하자면 삽빠다사 비구도 심각한 인지왜곡으로 부정적 사고를 하고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는 진전이 없는 출가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괴로워하며 결국 자살을 생각했다. 자살 방법은 먼저 코브라에 물려 죽는 것이었지만 실패하고 두 번째 자살 방법은 삭도로 목을 자르려 했다. 사원의 이발사로 통했던 그는 두 개의 삭도를 들고 도반의 머리를 깎아주었다. 한 개의 삭도를 내려놓았다가 드는 순간 그는 자살 충동이 또 일어났다. 나무 밑에서 자살하려던 삽빠다사 비구는 출가 생활을 회상했고 자신의 출가 생활이 청정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비록 진전이 없어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었지만, 자신의 수행 생활이 티끌 하나 없는 투명한 보석처럼 청정하다는 것을 회상하자 황홀함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 위빳사나 지혜로 수행해 사무애해(詞無礙解, 여러 가지 언어를 막힘없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말함)를 갖춘 아라한이 된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가 간절히 원했던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삽빠다사 비구의 밝은 한 생각과 인내이다. 그 결과로 마침내 얻은 결실이 자살 사고를 끊어냈다.

부처님은 "번뇌를 제거한 아라한은 자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 주목하는 것은 도반 스님들의 관심과 질문이다. 도반들은 삽빠다사 비구의 부정적인 생각을 오랜 기간 함께 있으며 알고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뱀에게 물려 죽으려,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뱀을 갖다버렸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어째서 코브라가 아니라 생각하느냐?" 등 여러 질문을 한다. 삭도로 자살하려다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어디 갔다 오느냐?"며 질문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밝은 생각을 떠올린 삽빠다사 비구의 마음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관심을 기울인 공동체의 편견 없는 친밀함이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⑯ 걷기의 시작이자 기초, 발

맨발에 가까운 신발이 '발 건강' 지킨다

발의 구조적 특성

"인간의 발은 예술과 최고의 공학적 기술이 어우러진 걸작품이다.(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바닥, 발목의 관절은 걷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충격 흡수 및 인체 추진체 역할을 일생 동안 해내야 한다. 대단한 유연성과 내구성이 요구된다.

발 뼈에는 서로 연관된 근육들이 늘어나고 조임을 반복한다. 건강한 발은 각각의 발과 근육들의 상호 작용이 완벽해야 한다. 땅을 딛는 순간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땅을 박차는 순간에는 추진력을 내는 구조로 순간 순간 변해야 하는 유연함을 갖는 게 우리의 발이다.

발의 운동역학

사람이 움직일 때 거의 모든 관절은 구름 회전, 활주 그리고 흔들림이 결합돼 움직인다. 문제는 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관절은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발바닥, 발목,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과 인체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관절에서 하나의 고정축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움직임의 중심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 움직임의 지속적인 중심축을 찾지는 않는다. 대신 관절 움직임의 특정 시점에 축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 움직임의 순간(Instantaneous axis of mo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발에는 두 개의 가동축이 있다. '세로족근 중간 관절축'과 '비스듬족근 중간관절축'이다. 발 관절의 운동은 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평면운동에 불과하지만, 이들 관절은 발의 앞부분의 다른 관절들과 함께 발의 앞부분을 어느 정도 돌리는 안으로의 회전과 밖으로의 회전운동에 관여한다.

걸을 때마다 매번 발바닥은 몸무게 전체를 지탱하여 몸이 좌우 전후로 움직여도 균형을 이루게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에서 발바닥이 온전히 단단하고 강한 뼈로만 이루어졌다면 발 뼈는 반복되는 충격에 곧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발에는 보이지 않는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서, 수십 년간 걸어도 발은 넉넉하게 기능을 한다.



발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의 문제점

발은 평생 자기의 몸무게를 버텨준다. 그러다 보니 발의 근육과 뼈는 다른 내장기관이나 상체의 뼈와는 달리 질기고 튼튼하며 단단하다. 그런 발에도 변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발 변형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기형, 근육마비, 근육 경련, 체중 부하에 따른 응력의 작용으로 인한 변형 그리고 맞지 않는 신발 등의 원인이 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확률로 발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신발이다.

발이 변형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으로는 발목이 바깥쪽으로 흔들리는 발의 외반, 안쪽으로 흔들리는 내반, 뒤꿈치로 걸으며 지면에 발 앞꿈치가 닿지 않는 구조, 뒤꿈치가 닿지 않고 앞꿈치로 걷는 첨족, 족궁이 너무 높거나 혹은 발바닥이 우묵하게 들어간 요족, 그 외에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발의 구조를 감안할 때 맨발에 가까운 신발이 가장 이상적인 신발이다. 발의 뼈들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튼튼하게 되어 있어 몸무게를 가장 많이 지탱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스포츠과학적 효율성과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는 신발의 구조가 오히려 발을 망친다.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발이 약해지고, 발에 의지하는 척추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노쇠 현상을 빠르게 한다.

발을 건강하게 하는 법

발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발가락과 족궁이 잘 움직이고 제한받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에서 일어나는 온갖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발의 기능보다는 맵시와 일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수시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는다. 맨발로 걸으면서 퇴화된 발의 감각을 살리고, 좁은 신발로 쭈그러들었던 발과 발볼을 확장시킬 시간을 갖는다.

맨발로 걸을 때 주의할 점은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자갈이 많은 길은 피하고 흙길, 이미 사람이 많이 다니던 길을 걸어야 지면에 있는 위험물로부터 부상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처음 걷는 사람은 20~30분 정도 걷기와 휴식을 반복하고, 다음 날 몸과 발바닥에서 열이 날 수 있으나 곧 회복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 마사지도 수시로 해준다. 발에는 큰 근육도 있지만, 작은 근육들도 있어서 피로를 쉽게 느낀다. 특히 발의 근육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모여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발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하며,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 족저근막을 늘려 준다. 손으로 직접 해도 좋지만 골프공이나 발 마사지 도구를 발바닥에 두고 지그시 밟으며 마사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무아지경상 받은 연등회 영상
'불교도 힙하다' 체감했던 경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합창단은 부처님오신날에 매번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전이다.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COVID-19)의 유행으로 합창단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찬불가 열창대회 이외에도 뮤직비디오 촬영, 합창 녹음 등 다양한 시도를 했었다. 그중에는 유튜브 촬영도 있었는데, 이때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전을 알게 됐다.

연등회에서는 매년 축제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과 율동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때 공모전도 같이 진행된다. 움직이며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에게 이런 공모전은 아주 찰떡과도 같았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신나는 찬불가도 알려줄 수 있다니 일석이조 아닌가.

그래서 2023년 합창단 어린이들과 함께 연등회 율동 동영상 공모전 어린이 부문에 참여하였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사찰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사실 공모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전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런 우리의 무아지경 상태를 알았는지 공모전 결과도 '무아지경상'이었다.

2024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던 때, 우리는 어김없이 연등회 율동 공모전에 다시 참여했다. 우리를 무아지경에 빠뜨렸던 그날의 기억을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절에 다니는 모든 분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 그리고 자모합창단인 세향합창단 단원들까지 총 세 팀이 참여했다.

연등회 율동 공모전 준비과정은 한편으로는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매주 법회 때마다 세 팀이 모여서 각각 율동과 노래를 연습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아지경이었는지 하마터면 공모전 출품을 위한 연습이라는 것도 잊을 뻔 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유독 인상적이었는지 지나가던 노보살님들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또, 공모전 출품을 위해 촬영을 해주신 감독님도 찬불가를 이렇게 신나게 촬영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신기해했다.

물론 나는 이런 반응이 한편으로는 불교가 충분히 신나고 힙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처럼 우리 불교도 사찰에서 활발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더욱 불교가 널리 알려지고 긍정적으로 보여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MZ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이들을 불교 신행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송마나의 **시절인연**

인생은 본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다. 밤에 불을 밝히면 하루살이가 떼로 몰려들어 눈살을 어지럽힌다. 아침이 되어 창문을 열면 하루살이 사체가 수북이 쌓여 마음을 언짢게 한다. 특히 장사하는 가게 주인에게는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하루살이'라는 이름은 성충으로 단 하루에서 며칠 만 생존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생애 대부분을 물속에서 한 달 또는 몇 년을 유충으로 지내다가 날개를 달고 뭍으로 나와 성충으로 짧은 삶을 마감한다. 하루살이는 오랜 시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비행하며 짝을 찾아 후손을 남겨야 한다. 입이 퇴화한 성충은 체내에 저장해 둔 에너지로만 활동하다가 수컷은 죽을 줄 알면서도 종족을 남기기 위해 기꺼이 교미를 한다. 암컷 역시 물속에 알을 낳은 후 장렬하게 산화한다.

사실 하루살이는 무해한 벌레이고, 하루살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턱대고 하루살이를 혐오하고,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루살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저녁에 하루살이가 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은 하루살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인 것이다. 우리는 하루살이의 그 짧은 하루를 우리의 백 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그저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하며 백 년을 무료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루살이 벌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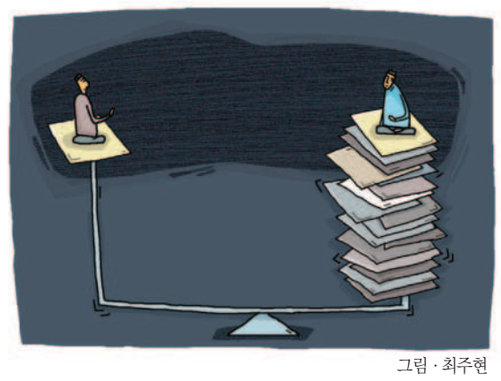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단 하루를 살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물속에서 애벌레로 지내야 했던 하루살이가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세상의 눈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루를 향해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역에 나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란 의미는 하루살이 애벌레가 물속에서 열 번 넘게 살갗을 벗겨내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일컫는 것 아닐까. 자기 힘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강하게 만들어 마침내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하루살이.

인간이 백 년을 산다 해도 그날들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웅덩이에서 살아가는 애벌레와 다를 바 없다. 악취 나는 그 물속에서 병든 몸을 부여안고 행여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될까 벌벌 떨며 아슬아슬 살아가는 그 고뇌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할 때까지 견디고, 또 견뎌내야 하는 고행인 것이다.

마침내 낡은 몸을 벗고 새 몸으로 변이되는 탈각, 탐진치(貪瞋癡)의 삼독을 끊어내고 부처가 되는 환희 아닌가. 이제 색신(色身)과 법신(法身)은 둘이 아니다. 부처의 삶은 하루를 사는 것이다. 낮만이 하루가 아니고, 밤만이 하루가 아니다. 낮과 밤이 함께 있어야 하루다. 생사일여(生死一如),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이 완전한 하루살이 삶이라 할 수 있다.

하루살이는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뿌연 무의식 속에서 헤매다 오욕(五慾)이 떨어져 나가 초의식의 세계로 터져 나올 때, 어제니 내일이니 하는 분별은 사라지고 오직 진리의 하루살이가 시작된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이고, 깨어난 하루를 살면 100년을 사는 것이다. 인생은 본디 하루살이의 삶이 아닐까.

〈작가〉

기자칼럼

올 가을은 명상과 함께

가을이 오면 자연은 고요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과 서늘한 바람은 우리에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사색할 시간을 선사한다. 길고 긴 무더위가 끝나고 찾아올 가을이 더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 계절에 명상은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방편이 된다. 올가을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곳곳에서 마련된다.

오는 9월 24~25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개최된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맞춤 명상법을 배워보는 자리다.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11명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명상 콘퍼런스'는 물론, 세계 각국 명상을 경험해 볼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K-명상 세계화의 초석이 될 조계종의 '2024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 불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와 원로위원, 본사주지, 종회의원, 각급 종정기관 위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승보공양 법회,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국제 선명상 대회', '국민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있는 명상에 다가설 수 있다.

이같은 행사는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명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게다가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한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도 깨닫게 해준다.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한다. 수확의 기쁨, 단풍의 아름다움, 그리고 깊어 가는 사색의 시간들. 여기에 명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더한다면, 올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명상이라는 여정에 함께 발을 디뎌보자.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룹 '지오디(god)'의 노래 '길'의 일부다. 유행가의 한 구절로 지나칠 수도 있으나, 불교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다. 우리는 저마다 오늘을 살고,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길을 되돌아보면 평탄하지도, 올곧지도 않으며, 그 발자국은 자신만의 것이 아닌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자신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교는 윤회를 받아들이면서도,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 수행한다. 윤회를 통해 지금의 삶을 이 순간만의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혀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매 순간 다가오는 삶의 모습이 자신을 둘러싼 인연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 그 힘으로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과 이해가 없이,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내일은 그로 인해 하루 더 늙고, 하루 더 지친 날로 다가올 뿐이다.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이끌어 가는 것을 '업'이라 한다.

저마다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길
그 길은 평탄치도 올곧지도 않아
목적을 깨닫고 길 걷는 삶 살길

똑같은 하루라도 업으로 산다면, 그 업력에 의해 끌려가는 하루가 되고, 자신의 일을 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하기 바쁘고, 내면이 아닌 외부에 이끌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하루를 법답게 산다면, 윤회의 하루일지라도 자신이 그 길을 이끌고 가게 된다. 설령 길을 잘못 들었더라도 자신이 그곳으로 간 것이기에 다시금 발걸음을 되돌려 나올 수 있고, 다른 길로 자신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때 불교에서 말하는 참다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다.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라는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목적도 아닌 오늘도 자기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큰 목적(꿈)을 찾아 고민하고 헤맨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긴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을 갖고 시간을 보낸 적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기에 큰 목적에 앞서 그 하루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오늘 하루는 다시금 지나간 어제로 다시 남아버릴 것이다.

〈청정도론〉의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는 가르침과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핵심은 바로 '연기(緣起)'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인연과 결과의 이어짐 속에 존재한다. 만약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주변의 인연과 그것들과 함께하는 자신을 살펴봐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설한다. 내 주변의 일이 나와 무관하게 생겨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참나, 참사람, 참다운 삶 등 최근 들어 이 '참'에 관한 표현이 부쩍 늘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참'답지 못한 것이 많아졌고, 그에 대한 갈증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참'은 연기로 인해 생겨난다.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외면이 일원화된 모습으로 길을 걷는 자신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 그 끝에서 꿈을 발견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자.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오늘 하루이다.

장애인과 의사소통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구 중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통계를 살펴보면서 세상은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나 타인이 될 수 있다는 말, 어떤 찰나의 인연에 의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자타불이(自他不二)."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참다운 인권의 실천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강요한 무언의 차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을 향한 선택으로 세상과 어우러진 보통의 삶을 원한다.

장애인들은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며 세상을 변화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동권, 주거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 현실적 권리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며 이슈가 되고 있고 이들의 노력은 많은 제도의 마련과 실천적 성과를 가져왔다.

佛說엔 장애, 비장애 분별 없어
모두가 소중한 부처님 제자들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야

그러나 언어, 청각,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인 등 대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은 제도가 마련 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의사를 바로 전달할 수 없고 세상의 정보를 알 수 없는 불평등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충분한 수어 통역과 노동, 교육에서의 소통 환경 개선, 대체 의사소통(AAC)의 활용, 보조공학기기의 사용 등 폭넓은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단체, 보조 기기센터, 의사소통 전문가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연대모임을 만들어 지역사회 소통의 장벽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불자로서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슬라이드를 보듯 지나간다. 이 세상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 인연으로 설켜 있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두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누구 하나라도 소통의 부재로 소외되지 않도록 한마음이 되는 게 불제자로서 함께 가는 동행이다.

불교계에서도 장애인을 시혜와 온정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장애인 중심의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좋은 모델을 발굴했으면 한다. 또한 포교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환경조성에 관심을 두고 장애불자들이 누구나 소통의 벽 없이 포교 활동을 하도록 통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社 說

비구니 군승 약진 기대한다

군(軍)은 전통적으로 금녀의 공간이었다. 한국에서 여군 창설은 1950년 9월 6일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발족된 여자의용군교육대를 기점으로 본다. 하지만, 대부분 한정적 보직에만 머물며 진급에도 많은 차별을 받았다. 첫 여성 장군은 2002년이 되서야 간호병과에서 배출됐다.

이는 군종장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승의 경우 1951년 불교종군포교사회의 창립으로 시작됐으며, 1968년 첫 군승장교가 배출됐다. 이후 2014년 비구니스님이 군승으로 파견되기까지는 46년이 걸렸다. 명법 스님이 첫 비구니 군승으로 임관한지 꼬박 10년이 지났다. 10년 이후 비구니 군승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올해 군승 소령 진급자 3명 중 2명이 비구니 군승이었고 균재 스님은 비구니 스님 최초로 해외 파견에 나선다.

스님은 9월 2일부터 레바논 동명부대 30진으로 8개월 간 파병된다. 파병 인원 중 군종장교는 균재 스님이 유일하다. 스님은 현지에서 국군 장병들과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며 부대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신앙 활동, 심리상담을 전담할 예정이다.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조직의 관습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유리천장'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비구니 군승들의 노력들은 군대 내부의 '유리천장'을 깨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앞으로 비구니 군승들의 약진이 더욱 기대된다.

불교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필요하다

8월 19일 조계종과 동국대가 개최한 특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 커뮤니케이션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김두식 동국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은 설문을 통해 '사람들이 불교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섯 비구에게 법륜을 굴리신 이후, 40여 년을 맨발로 다니며 스스로 법을 전하셨다. 이는 각 지역 국가, 타종교 신앙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 행위다.

부처님 입멸 이후에도 제자들은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 법을 전하며 대중과 소통해왔다. 경전 내용을 담은 불화와 변상도, 땅설법으로 남아있는 속강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18년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발견된 불교 대중극 대본 〈연희대본〉은 얼마나 대중과 친밀하게 불교가 소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들이다.

현재 '힙한 불교'가 열풍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불교는 단 한번도 '힙'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불교 커뮤니케이션학은 대중과 더욱 힙하게 소통하는 창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구될 '불교 커뮤니케이션학'이 대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편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8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8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